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8 호 4 월 20 일

평양 근로자사 1964

근로자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제 8 호 (246)

1964년 4월 (하)

(반 월 간)

차 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분렬하려는 책동을 저지시키자

오늘 전반적인 정세는 혁명하는 인민들에게 더욱더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다.

광범한 대중의 반제 혁명 투쟁은 앙양되고 있으며 제국주의 진지는 계속 붕괴되고 있다.

그런데 수정주의의 길로 굴러 떨어진 일부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커다란 저애를 받고 있다.

이 사람들에 의하여 지금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 내에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가 조성되고 있다.

이 수 주일 간 일부 사람들은 당 전원 회의들을 통하여, 연설과 출판물들을 통하여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형제 당들을 공격하는 대대적인 깜빠니야를 전개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지방 당 조직들의 회의를 열고 매일과 같이 형제 당들을 공격하고 있으며 모든 선전 수단을 동원하여 련속 중상과 비방을 일삼고 있다.

그들은 나아가서 형제 당과 형제 나라를 사회주의 진영에서 배제하기 위한 《집단적 조치》에 대하여 떠들고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진영을 분렬시키려는 로골적인 책동이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먼저 적들의 면전에서 의견 상이를 로출시키고 형제 당들을 중상 비방하고도 저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위한 것》이라고 하며 남이 자기의 견해를 주장하는 것은 《교조주의》요 《종파 행위》요 하면서 비난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먼저 공개적인 론쟁을 시작하였으며 또한 말로는 공개적인 론쟁을 중지하자고 하고는 계속 형제 당들을 공격하고 있으면서도 남이 이에 대답하는 것은 도전이라고 하며 《결정적인 반격》에 대하여 떠들면서 위협하고 있다.

이것은 불을 지른 자가 불이야 하는 격이며 저들의 분렬 행위를 은폐하고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려는 행위이다.

바로 분렬 행동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며 통일과 단결에 대한 위선적인 말로 자신을 분장하고 분렬을 위한 동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그들이 전개하고 있는 깜빠니야의 진정한 내용이다.

이 사람들의 분별 없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은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기뻐 날뛰면서 여기에 키질을 하고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대치하여 긴장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분렬 책동을 단호히 배격한다.

우리는 분렬을 반대하며 통일을 진심으로 념원한다.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동일한 사상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체적인 노력에 의하여 행동의 통일을 보장할 기초를 가지고 있다.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 선언과 성명의 혁명적 원칙들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모든 형제 당들의 행동의 지침으로 된다.

또한 선언과 성명은 완전한 평등, 자주성, 호상 존중, 내정 불간섭, 동지적 협조 등을 포함한 형제 당 및 형제 국가들 간의 호상 관계의 규범을 규정하였다.

이 규범들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진영의 장구한 발전 과정에서 축적된 력사적 경험을 총화하여 형제 당들이 일치하게 내린 결론이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을 위하여서는 모든 공산당 및 로동당들이 다같이 선언과 성명의 혁명적 원칙들을 준수하며 다같이 호상 관계의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일관하게 주장하였다.

만일 일부 사람들이 맑스-레닌주의와 공동으로 작성한 선언 및 성명의 혁명적 원칙들을 함부로 위반하지 않았다면, 만일 그들이 형제 당들과 형제 국가들 간의 호상 관계의 규범들을 유린하지 않았다면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 내에는 오늘과 같은 복잡한 현상이 나타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우리 당은 단결을 위하여 초시기부터 형제 당들 간의 의견 상이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내부 문제로 동지적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할 것을 주장하였다.

우리는 일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론쟁을 개시하였을 때 이를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형제 당들을 고립시키고 배제하려는 분렬 행동을 반대하였다.

우리는 지난 기간 참기 어려운 문제도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위하여 참으면서 내부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만일 일부 사람들이 평등한 립장에서 의견 상이를 동지적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며 진실 앞에 허심하게 대하고 잘못을 시정하며 표리 부동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조성된 사태는 이미 수습되였을 것이며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더 큰 승리를 달성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맑스-레닌주의와 선언 및 성명의 혁명적 원칙들을 공개적으로 위반하고 그릇된 견해와 주장을 류포하였으며 유해로운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들은 형제 당들의 정당한 의견에 대하여서는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그릇된 견해를 남에게 강요하며 저들을 추종하지 않고 혁명적 립장을 견지하는 계급적 형제들에 대하여 각방으로 타격을 가하며 고립시키며 배제하려고 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그들은 사회주의 진영에서 몇몇 나라를 떼여 버려도 아까울 것이 없다는듯이 행동하면서 의견 상이를 국가적 관계에까지 확대시켜 형제 국가들 간의 협정들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형제 국가와 국교를 단절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혁명적 동지와 계급적 원쑤들을 분별하지 않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제국주의를 미화 분식하고 그들에게 무원칙하게 양보하고 순응하며 《친선》과 《호의》를 표시하면서도 도리여 계급적 형제와 혁명적 동지들에게는 원쑤처럼 대하는 참을 수 없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모든 공산주의자들과 세계의 로동 계급은 이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이 심중한 해독을 입은 데 대하여 가슴 아파하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은 장구한 기간에 걸친 국제 로동 계급과 피압박 근로 대중의 피어린 투쟁의 위대한 결실이다.

사회주의 진영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 력량이며 세계 평화의 불패의 성새이며 모든 진보적 인민들의 승리의 믿음직한 담보이다.

이 고귀한 승리의 결실을 어떤 한 당이나 한 나라가 절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다.

사회주의가 세계적 체계로 전변된 오늘 어떤 한 나라가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 전체가 세계 혁명의 기지로 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한다는 것은 어느 하나의 사회주의 국가나 일부 사회주의 국가만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은 그 통일과 매개 사회주의 국가들의 장성 발전에 의하여 강화된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큰 나라이건 작은 나라이건 할 것 없이 다 혁명적 립장에서 견결히 노력한다면 자기들이 차지한 위치에서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강화하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큰 나라라 하여 결코 사회주의 진영을 대신할 수 없다. 더우기 크고 혁명한 지 오랜 나라라 하여 맑스-레닌주의 원칙에서 리탈하며 공동의 리익에 관계되는 문제들을 제멋대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없다.

큰 나라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더욱더 큰 후과를 미친다.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힘을 합치고 하나의 전일체로서 굳게 단합됨으로써만,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치하게 행동함으로써만 사회주의 진영은 그 위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수호한다는 것은 그 누구를 무원칙하게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적 원칙을 견지하며 공동의 리익을 위하여 계급적 동맹을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기초하여야만 진정으로 통일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하며 그 통일을 수호하는 것은 세계 혁명의 기지를 옹호하는 것이며 평화와 제 인민의 진보를 위한 기본 진지를 고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파괴하는 행위는 국제 로동 계급의 리익을 저버리는 것이며 매개 사회주의 나라 인민들의 리익을 저버리는 것이다.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내에 오늘과 같은 사태를 조성시킨 사람들은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로동 계급의 리익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선언과 성명의 혁명적 원칙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 행위와 단결을 파괴하는 대국 배타주의적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고 즉시 그만 두어야 할 것이며 사태를 랭정하게 고찰하고 진정한 통일을 위한 길로 돌아 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더욱더 격화되고 있는 반중국 깜빠니야와 이른바 《집단적 조치》에 대한 소란스러운 행동은 이 사람들이 분렬주의의 길로 더욱더 깊이 빠져 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중국 공산당과 중화 인민 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고수하며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고 있으며 세계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국주의자들과 국제 반동 세력은 극도의 증오감을 품고 중국의 위신을 저락시키고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하여 미쳐 날뛰고 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이에 맞장단을 치면서 《호전 분자》요, 《뜨로쯔끼주의》요, 《분렬주의》요 하면서 중국을 중상하며 공격하고 있다.

공산주의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제국주의자들과 같이 중국을 맹렬히 공격하며 고립시키고 배제하려는 것은 실로 위험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사실 상 사회주의 진영 인구의 3 분의 2를 차지하는 중국을 고립시킨다는 것은 사회주의 진영의 분렬을 의미한다.

중국을 고립시키고 배제하려 하면서 사회주의 진영의 그 어떠한 통일에 대하여도 말할 수 없다.

이것은 비단 큰 나라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작은 나라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사회주의 진영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어느 한 특정된 나라의 혁명의 성과만이 귀중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주의 국가의 성과가 다 같이 귀중하다.

사회주의 진영에서 어제 한 나라를, 또 오늘은 다른 한 나라를, 또 래일에는 그 어떤 다른 나라를 고립시키고 배제하는 식으로 나간다면 결국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사분오렬시키게 되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일이다.

더우기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강요하면서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형제 당들을 고립시키고 배제하려는 것은 세계 혁명의 기지인 사회주의 진영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말아 먹으려는 것이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와해시키려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주의 진영 전체의 운명에 관계되며 세계 혁명의 운명에 관계되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분렬 책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남에게 자기 의사를 강요하면서 한 나라의 당 대회를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의 《새로운 단계》의 개시로 묘사하며 누구나 다 그 결정을 떠받들고 거기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한 나라 당 결정에 옳은 것이 있건 그른 것이 있건 덮어 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 들이여야 하며 그래야 국제주의라고 떠들고 있다.

형제 당들은 호상 경험을 배워야 하

며 남의 좋은 것과 자기 실정에 부합되는 것은 섭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매개 당이 자주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내부 문제이다.

남의 좋은 것이라도 자기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을 교조주의적으로 받아 들이는 것은 리롭지 못 하며 더우기 그릇된 것을 맹목적으로 받아 들이는 것은 자기 나라 혁명 위업에 손실을 줄 뿐만 아니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위하여서도 유해로울 뿐이다.

최근의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수 많은 교훈들은 이것을 너무나 똑똑히 말하여 주고 있다.

최근 년간 일부 사람들이 사회주의에로의 《평화적 이행》을 절대화하는 것을 비롯한 그릇된 방침들을 남에게 강요한 까닭에 일련의 나라에서의 혁명은 적지 않은 손실을 당하였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신을 가장 철저한 《교조주의》의 반대자로 묘사하며 말로는 《평등》을 운운하면서도 한 당의 정책과 결정을 다른 형제 당들에 의무적으로 내리먹이려 하고있다. 나아가서는 형제 당의 내부 문제와 형제 나라의 내정에 횡포하게 간섭하며 파괴 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자기 당 결정을 남에게 강요하려고 계속 시도하면서 저들과 형제 당들 간의 관계가 악화된 원인이 자기 당 대회의 결정을 형제 당이 접수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서슴없이 말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 사람들의 형제 당들의 자주성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 것인가는 너무나 명백하다.

더우기 그들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엄중한 후과를 미친 소위 《개인 미신 반대 운동》을 계속 떠들어 대고 있다.

지난 기간 이 사람들은 소위 《개인 미신》에 대한 딱지를 들고 다니면서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들을 모해하고 공격하며 형제 당과 형제 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그 나라 반당 종파 분자들을 조종하면서 형제 당을 분렬시키고 형제 나라의 당 지도부를 전복하기 위한 활동을 감행하였다.

이것은 국제 종파의 가장 추악한 행위이다. 소위 《개인 미신》에 대한 딱지는 그들이 저들을 추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한 악명 높은 방패로 되고 있다. 그들은 이 배신적인 행위에 대하여 반성할 대신에 계속 혁명적 립장을 견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개인 미신 반대》의 《신선한 바람》과 《새로운 정신》이 가 닿지 않은 《교조주의자》니 뭐니 하며 공격하고 있으며 이 딱지를 형제 당 지도부를 전복하기 위한 도구로 리용하고 있다.

바로 《개인 미신 반대》의 소동으로 하여 수 많은 형제 당들이 《열병》을 겪었으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이 커다란 손실을 당하였다.

바로 이것을 기화로 제국주의자들과 그 사촉을 받은 변절자들이 반혁명 폭동을 일으켰으며 국제적으로 반공 깜빠니야를 전개하였으며 오늘도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공격하는 자본으로 삼고 있다.

만약 이러한 《개인 미신 반대》 소동이 《신선한 바람》이고 《새로운 정신》이라면 그것은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 진영을 와해하고 파괴하기 위하여 떠벌리고 있는 《자유의 신선한 바람》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사실 상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바람》에 대하여 극구 찬양하기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자신이 이와 같이 험악한 국제적인 종파 활동과 파괴 활동을 감행하고도 파렴치하게 남을 《분렬 행위》를 한다거니 하면서 사실을 전도하여 모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공산주의자의 량심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러한 모든 수법과 행위는 결국 그들 자신의 정치적 도덕적 파산을 보여 줄 따름이다.

그들은 또한 형제 나라 당과 인민이 자기 힘으로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매개 사회주의 국가는 자기의 자립적인 경제를 강화하여야 정치적 독립을 공고히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매개 사회주의 국가가 자기의 내부 력량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민족 경제를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의 협조를 더 효과적으로 하며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강화하는 담보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형제 나라들이 자립적인 민족 경제를 건설하는 것을 《민족주의》요, 《고립주의》요 하는 황당한 소리로 비난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을 비난하는 진정한 목적은 딴 데 있는 것이다.

그들은 소위 《통합 경제》를 운운하면서 다른 나라의 경제 건설 사업까지 통제하며 지배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남의 자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며 사회주의 진영 전반의 리익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혼자서 독판을 치며 다른 나라 경제를 저들의 부속물로 만들려는 전형적인 민족 리기주의의 표현이다.

사회주의 진영을 약화시키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와해시키려는 이 모든 책동은 단호히 배격되여야 한다.

분렬 책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제주의적 립장에서 더욱더 멀리 떨어져 나가 로동 계급의 국제적 단결과 국제 로동 계급과 피압박 민족들의 단결을 방해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맑스-레닌주의당들과 로동 계급은 계급적 련대성에 의하여 굳게 련결되고 있으며 국제 로동 계급과 피압박 민족들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의 투쟁 전선에 결합되여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피부 색갈이나 인종 및 지역 별이나 나라의 발전 수준 등 표징들에 관계 없이 오직 계급적 전우로서 호상 존중하며 협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극도의 거만을 부리면서 아세아 당들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독자적 활동을 할 수 없다는듯이 말하며 혁명적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사람들과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피어린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혁명 투사들을 《정치에 미숙》하고 《불견실한 자》들이라고 비방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자기의 혁명 전통과 경험만 내세우면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로동 계급의 수가 적기 때문에 당이 혁명을 옳게 령도할 수 없으며 혁명이 승리하여도 지탱하기 곤난하다는듯이 말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다 남을 멸시하고 모욕하며 계급적 단결을 파괴하는 대국 배타주의적 행동이다.

우리는 형제 당의 혁명 전통과 경험을 존경한다.

그러나 주요한 것은 과거의 자랑이 아니라 오늘 누가 혁명을 위하여 옳게 투쟁하는가 하는 데 있다.

현재 혁명적 립장에서 리탈하고도 혁

명 전통을 자랑하는 것으로는 자신을 변명할 수 없다.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어느 특정된 지역의 혁명 투쟁만이 주요한 것이 아니라 세계 어느 지역에서 진행되는 혁명 투쟁이든 다 같이 귀중하며 이것을 공동의 위업으로서 지지하고 성원하여야 한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이 국제주의의 초보적인 원칙마저 위반하면서 마치 구라파의 혁명 투쟁만 큰 것이고 세계 다른 지역 인민들의 혁명 투쟁은 보잘 것 없다는듯이 말하고 있다.

특히 그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 인민들의 반제 혁명 투쟁을 지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방으로 훼방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그 어떤 《모험주의적》인 《소부르죠아 운동》이라고 중상하고 있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거세찬 반제 혁명 투쟁의 불'길이 타 오르고 있다. 이 혁명 투쟁은 제국주의 진지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전반적인 세계 혁명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평화를 수호하는 거대한 력량으로 되고 있다.

오직 혁명적 립장을 떠난 자들만이 이 투쟁을 외면하며 이 투쟁의 의의를 훼방하려 할 수 있다.

이 지역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로동 계급의 령도 하에 각성된 농민들이 혁명에 진출하고 있으며 일련의 나라에서 혁명이 승리하였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 나쁘단 말인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지역 인민들이 단결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것을 구라파 자본주의 국가 근로자들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비방하고 있다.

이것은 근로자들 속에서 민족주의적 감정을 고취하고 반목을 조성시키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자본주의 국가 로동 계급과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을 분렬시키려고 책동하면서 제국주의자들이 떠벌리고 있는 것과 같은 소리를 공산주의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에게서 듣게 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공산주의 운동 대렬 내에서 이러한 그릇된 행동들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으며 반드시 청산되여야 한다.

국제 로동 계급과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은 그들이 피로써 쟁취하였으며 사수하여 온 위대한 혁명적 전취물인 사회주의 진영을 파괴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으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와해시키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오늘 일부 사람들에 의하여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이 위험에 처한 이 때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과 국제 로동 계급 앞에는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승리를 위하여 통일을 수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전개할 신성한 임무가 나서고 있다.

조성된 사태는 모든 공산당들과 공산주의자들에게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리익을 위하여,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의 위업을 위하여 깊이 생각하고 정확한 립장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 일부 사람들의 분렬 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은 개별적 당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 당들과 공산주의자들에게 관계되는 문제이다.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 내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는 공산주의자들 자신이 해결하여야 한다.

현재의 사태는 결코 몇몇 당이나 몇몇 사람들에 의하여 타개될 수는 없다. 세계의 모든 당들과 공산주의자들의 공동 노력에 의해서만 분렬은 저지되고 통일은 보장될 수 있다.

모든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 운동의 리익을 위한 공명 정대한 립장에 서며 자주성을 견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세계의 모든 공산주의자들이 로동 계급의 숭고한 위업 앞에서 지니고 있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사태를 랭정하게 고찰하며 사실에 기초하여 시비를 가리며 심사 숙고하여 자기의 정확한 립장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인정한다.

공정하고 자주적인 립장에 확고히 섬으로써만 사태를 정확히 평가하고 공동의 위업을 위하여 적당하게 활동할 수 있다.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은 모두가 다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하여 책임 지고 있으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대하여 책임 지고 있다.

우리는 공산주의자의 량심으로 어느 길이 로동 계급의 위업을 위한 길인가를 재삼 생각하며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자주적인 립장에서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조성된 사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자기 당의 기성된 권위를 리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분렬주의적 행동의 뒤를 따를 것을 강요하며 지지자들을 긁어 모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들은 남에게 그릇된 행동을 강요하며 자기 의사에 복종하지 않는 당들을 배제하기 위하여 소수와 다수에 대하여 떠들면서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중앙 집권적 원칙과 규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그 어떤 조직 형태를 꾸며낼 대책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이것은 형제 당들의 회의에서 이미 배격되고 파산 당한 것이다.

공산주의 운동 대렬 내에는 상급과 하급의 관계란 있을 수 없으며 누구는 그 어떤 중앙적 위치에서 명령하고 통제하며 누구는 그 밑에서 복종하며 집행하는 관계란 있을 수 없으며 기계적 다수의 의사를 강요할 수 없다.

중앙 집권적 원칙은 개별적 당들의 내부 생활에서 적용되는 규범이다. 이 원칙을 형제 당들 간의 관계에는 적용할 수 없다.

중앙 집권적 원칙을 운운하는 것은 결국 의견 상이를 조직적인 분렬에까지 이끌자는 것이며 자신을 중앙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자처하면서 대국주의적 오만과 전횡이 지배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진정한 단결은 모든 공산당들과 공산주의자들이 이러한 행동을 결정적으로 배격하며 그 누구도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좌지우지 못 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어떤 개인이나 한 당의 롱락물이 아니다. 더욱더 많은 공산당들과 공산주의자들이 일부 사람들의 전횡을 반대하여 투쟁한다면 그것은 저지될 것이다.

통일을 원하는 모든 당들과 모든 공

산주의자들이 힘을 합쳐 투쟁한다면 분렬 책동은 파산되고야 말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자기의 원칙적인 립장을 굽혀서는 안 되며 항상 독자적인 립장을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통일이 귀중하고 사회주의의 위업이 귀중하다면 외부의 압력에 눌리여 독자성을 상실하고 다른 당에 맹목적으로 추종할 수 없을 것이다.

자기의 주체성도 없이 남이 말하는 대로 따라 말하며 남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이는 것은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도 아니며 국제주의에 충실한 것도 아니다. 반대로 그것은 자기 인민과 국제 로동 계급의 혁명 사업에 손실을 가져 오며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진정한 국제주의적 단결을 약화시키게 된다.

공산주의자는 오직 혁명의 위업을 위하여 온갖 박해와 회유와 기만을 박차고 투쟁하는 투사이다. 공산주의자의 영예와 그들에 대한 대중의 신임은 오직 진리와 혁명적 신념을 위하여 불굴의 의지로 투쟁하는 거기에 있다.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을 위하여서는 맑스-레닌주의 순결성을 고수하여야 한다. 통일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의 선언 및 성명의 혁명적 원칙들에 기초하여야 한다.

오늘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발생한 의견 상이는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운명과 관련된 원칙적인 의견 상이로 발전하였다. 이것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의 단순한 투쟁 방법 상 문제가 아니라 혁명의 근본 문제와 관련되여 있으며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평화를 위한 전반적인 문제와 관련되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 대렬 내에 계속 혼란을 조성하고 분렬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에서 사회주의의 망신을 시키며 사회주의 진영의 위신을 저락시키고 있으며 전 세계 로동 계급이 장기간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위대한 진지를 허물어 뜨리려 하고 있다.

수정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고서는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할 수 없으며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진정한 통일을 보장할 수 없다.

또한 남에게 수정주의를 강요하며 전횡을 일삼는 대국 배타주의를 견결히 배격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국 배타주의는 단결과 통일을 파괴하는 위험한 독소이다. 대국 배타주의를 제거하여야 자각적인 단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며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진정한 통일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공산주의 운동 대렬 내에서 진지한 비판을 광범히 전개하여야 한다.

비판은 사실에 근거하여 평등하고 공정한 립장에서 자유롭게 진행되여야 하며 어디까지나 원칙적이며 동지적인 립장에서 진행되여야 한다.

자기들은 일방적으로 론쟁하며 무근거하게 남을 공격하면서 다른 사람의 정당한 목소리를 억압하고 그를 고립시키고 배제하려는 것과 같은 부당한 행동은 용납되지 말아야 한다.

광범한 비판이 전개될 때 누가 옳고 그른가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명백하여질 것이며 그릇된 것은 파산되고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자기 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야만 맑스-레닌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수호할 수 있으며 공산주의 운동을 건전한 토대 우에서 발전시킬 수 있다.

우리는 국제 공산주의 운동 내의 의견 상이를 해결하기 위한 형제 당들의 국제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형제 당들의 국제 회의는 자주성과 호상 평등과 동지적인 협의의 원칙을 준수하며 충분한 준비를 한 토대에서 진행되여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만일 지금 일부 사람들이 그 누구를 배격하기 위한 《필요한 방도와 수단》을 취하겠다고 미리부터 위협하고 있는 그러한 성격의 국제 회의로 된다면 그것은 분렬의 도구로만 될 수 있을 것이다.

혁명의 길에서 물러 나 사회주의 진영의 분렬을 조성하는 사람들은 만일 국제 로동 계급 앞에서의 배신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후과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기치를 더욱더 높이 들어야 한다.

모든 맑스-레닌주의당들이 단결하여야 하며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이 단결하여야 한다. 전 세계 로동 계급이 굳게 단결하며 세계 로동 계급과 피압박 민족들이 단결하여야 한다. 맑스-레닌주의당과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전 세계 혁명적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야 하며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맑스-레닌주의 위업, 로동 계급의 혁명 위업은 필승 불패이다.

수정주의자들이 아무리 책동하여도 맑스-레닌주의당들과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은 어떠한 경우에 부닥쳐도 모든 시련을 극복할 것이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계속 힘차게 전진할 것이며 혁명의 위업을 끝까지 수행할 것이다. 어떠한 힘도 혁명의 전진 운동을 가로막지는 못 한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어떠한 복잡한 환경에서도 항상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을 고수하였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변함 없이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 선언과 성명의 혁명적 원칙에 충실할 것이며 제국주의와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을 수호하기 위하여 완강히 투쟁할 것이다.

분렬 책동을 물리치고 통일을 수호하자.

전 세계 로동 계급은 단결하라!

세계 로동 계급과 피압박 민족들은 단결하라!

현대 부르죠아 《사회층》론의 본질

신 언 갑

자본주의 발전의 제국주의적 시대는 로자 간의 모순, 투쟁을 극도로 첨예화시켰다. 각국의 각성한 프로레타리아트와 혁명적 인민들은 제국주의의 존망에 위협을 주면서 혁명 투쟁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인민 대중과 제국주의와의 날로 첨예화되는 사회 계급적 모순, 민족적 모순들은 전 세계를 투쟁의 도가니로 만들고 있다.

어제'날의 그 어느 때에도 오늘처럼 반제 투쟁, 혁명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른 적은 일찌기 없었다.

이 거세찬 투쟁과 이 투쟁 행정에서 더욱더 각성하고 있는 인민 대중의 위력은 제국주의 부르죠아지를 전률케 하고 있다.

오늘 제국주의 독점체들은 자기들의 운명을 연장해 보려고 인민 대중의 계급적 각성을 무마시키는 데 력량을 집중하고 있다. 미국의 록펠러, 모르간, 포드 재벌들은 수천만 딸라의 돈을 써가면서 소위 사회 과학 연구 기관들을 꾸려 놓고 거기에 수천 명의 고용 인테리들을 인입 육성하면서 자기들을 찬미하는 각종 사상, 교리들을 꾸며 대게 하고 있다.

이러한 속에서 나온 부르죠아 사회학 리론 중의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이른바 《사회층》론이다.

그러므로 부르죠아 《사회층》론의 본질을 폭로하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 본질을 폭로 분쇄하고 그들을 고립시키며 인민 대중을 더욱 각성시켜 혁명 투쟁에로 불러 일으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부르죠아 《사회층》론과의 투쟁은 현대 수정주의-개량주의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현대 수정주의-개량주의자들이 떠드는 반맑스주의적인 《계급 협조》론, 각종 《구조 개혁》론, 의회주의 리론들은 모두가 다름 아닌 《사회층》론을 비롯한 부르죠아 사화학, 철학 리론의 병참고에서 그 밑천을 얻어 낸 것들이다.

따라서 현대 부르죠아 《사회층》론을 반대하는 투쟁은 우리 공산주의 운동 내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사상적 독소를 류포시키는 현대 수정주의를 배격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함에 있어서도 긴요한 문제로 된다.

현대 부르죠아 《사회층》론에는 여러 가지 조류가 있는바 여기에서 우리는 《사회층》론과 그의 변종들로 되는 《계급 소멸》론, 《계급 류동성》론, 《중류 계급화》론 등을 비판하려고 한다.

1

현대 부르죠아 《사회층》론은 사회의 구조를 기본으로 연구하고 있다.

《사회층》론에 의하면 사회 성원들의

구성 즉 《사회층》, 《사회 집단》, 《계급 구조》 등은 우선 사람들의 사상과 심리, 교육, 정신 문화, 생활 양식, 행동 등의 차이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론거들》로 사회의 구조를 설명하도록 고등 교육 기관들에 권고되고 있다.

이것은 사회를 물질적 관계에서가 아니라 정신적 관계에서 설명하려는 관념론의 립장이다.

물론 사상 의식도 그것이 일정한 물질적 관계를 반영해 나오는 것 만큼 각 계급들의 물질-생활적 처지에 따라서 공통성과 차이성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는 사회 성원들의 계급적 구성을 설명함에 있어서 참작될 수 있다.

그러나 계급은 그에 속하는 사람들이 의식하건 안 하건 간에 관계 없이 우선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계급 사회에 있어서 사상 의식, 심리, 생활 양식 등은 계급들의 경제적 처지를 반영한 2 차적이며 파생적인 것이다.

사람들의 사상 의식은 경제 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프로레타리아트가 자신을 부르죠아로 생각해 보는 것으로써는 결코 자신을 부르죠아로 만들 수 없다.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프로레타리아트는 그가 어떤 사상, 심리, 생활 양식을 가지는가에 관계 없이 삶을 위해서는 자기의 로동력을 생산 수단의 소유자에게 즉 부르죠아지에게 팔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그는 프로레타리아인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의식의 차이에서 계급 구분의 징표를 보는 것은 파생적이며 부차적인 징표로서 계급 존재의 기본 징표인 경제적 기초를 은폐하려는 것이다.

《사회층》론에서는 또한 사회 계급 구분의 기초를 《수입》 원천에서 찾는 견해가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한 리론의 주창자들은 《수입》에 따라서, 《수입 별로 본 계급》, 《수입의 계급》 등을 말하고 있다.

이는 계급 구분의 기준을 생산의 령역에서가 아니라 분배의 령역에서 보는 견해이다.

자본주의 하에서 로동 계급과 자본가 계급 간의 분배에서는 물론 심한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맑스주의자들은 분배를 계급 구분의 주요한 요소의 하나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것을 절대화하는 것은 문제를 그릇된 데로 이끌어 가기 위한 것이다.

분배가 계급 구분에서 주요하다고 하여 단순히 분배가 적으면 로동 계급이고 많으면 자본가 계급이라는 결론은 떨어지지 않는다. 우선 많고 적고 하는 것 자체가 극히 상대적인 것이다. 물론 한 자본가와 그에게 고용된 로동자 간의 분배 상 차이란 명백한 것이지만 전 사회적 견지에서 볼 때 자본가와 로동자 사이의 넓은 공간에서 중간 분배 몫을 차지하는 수다한 사람들의 계급적 기초 문제는 결코 이것으로 설명될 수 없다.

분배는 사회의 일정한 계급에 따라 공통성을 띠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상대적 성격을 띠는 것이다.

부르죠아 사회에서 분배는 부단히 오르내리고 있으며 또 국가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례컨대 제국주의 국가의 로동자와 식민지 국가의 로동자, 제국주의 부르죠아지와 식민지 국가의 민족 부르죠아지 간에는 분배에 있어서 대비가 곤난할 정도의 심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로동 계급과 부르죠아라는 점에서는 공통성을 띠는 것이다.

문제는 이 분배 상 차이가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밝히는 데 있다. 그래야 계

급의 본질을 밝힐 수 있다. 즉 자본가가 리윤을 얻고 로동자가 로임을 받는 분배상에 대한 그들의 관계, 사회적 생산에서의 그들의 위치, 역할과 관련된다.

수입에서 계급의 기초를 보는 견해는 원인과 결과를 슬쩍 바꾸어 놓고 첫자리에 부차적이며 파생적인 것을 놓고 본질적이며 결정적인 것을 뒤로 밀어 놓는 것 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수입》에 따라서 계급을 구분하는 견해와 함께 《직종 별》, 《직업 별》 차이들에서 사회의 계급적 구분의 기초를 보는 《리론》도 부르죠아 《사회층》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들의 견해에 의하면 직업 또는 직종에 따르는 사람들의 일정한 무리는 구체적인 《직업 그루빠》 혹은 《직종 그루빠》를 형성하는데 이것이 계급이라는 것이다. 이로부터 그들은 계급 자체를 《직종 별로 본 계급》, 《직업의 계급》으로 부른다.

사람들의 직업과 직종은 사회 계급적 구분의 기초로는 될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로동 계급의 직업에 대한 권리는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에게 있다. 자본가는 자기의 경제적 리해 관계로부터 출발하여 로동자들에게 일정한 직업과 직종을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다. 로동자는 살아가기 위하여 일정한 직업과 직종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부르죠아지의 요구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로동자는, 직업 선택의 일정한 희망과 가능성을 가질 수 있으나 그것은 극도로 제한된 의의 밖에 가질 수 없다. 부르죠아 사회에서 일'자리를 위한 경쟁은 그들의 선택의 《자유》에 무서운 독재자로 등장한다.

결국 직업은 사람들의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 관계를 반영하는 파생적인 것에 불과하다.

부르죠아 《사회층》론은 사회 구성과 계급 규정에서 부차적이고 파생적인 징표들로서 본질적인 징표들을 가리우는데 힘을 집중함으로써 계급 관계의 존재 자체를 거부해 보려고 한다.

2

《사회층》론의 중요한 변종의 하나는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계급이 점차 《소멸되여 간다》는 《리론》이다.

현대 부르죠아 사회학자들과 개량주의자들은 현 자본주의 사회에서 로동 계급이 《자본가화》, 《비프로레타리아트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에 자본가와 로동자 계급은 서로 《균등화》되고 점차적으로 《소멸되여 간다》고 주장한다.

이 《계급 소멸》론은 《사회층》론에서 계급 구분의 기초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사상 의식, 수입 분배, 직업 직종 등 분야에서의 차이가 소멸되여 간다는 《론거》에 의거하고 있다.

펜실바니야 종합 대학 사회학 교수 제시 버나드는 말하기를 《공업화된 사회에서 수입, 교양, 직종 및 소비 분야에서의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점점 더 적어져 간다》고 하면서 이에 기초하여 그는 계급적 차이의 《균등화》와 계급의 점차적 《소멸》에 관한 《결론》을 짓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널리 퍼지고 있는 것은 로동자와 자본가의 계선을 없애려는 《공동 주주》론이다.

이 리론에 의하면 자본주의적 기업소의 로동자들 가운데는 주권이 널리 보급되여 로동자들이 자본가들과 더불어 《공동의 주주》로 되였으며 따라서 자본가와 로동자 사이의 차이가 《소멸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리론들은 날로 커가는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적 적대 관계를 숨기

는데 돌려지고 있다.

물론 자본주의 하에서 로동 계급이 경제 투쟁으로 약간의 물질 생활 상 개선을 가져올 수도 있고 주권을 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경제적 형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거나 계급적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결정적 요인으로는 될 수 없다. 계급적 불평등의 근원은 생산 수단에 대한 불평등한 관계에 있는 것 만큼 근로자들의 경제적 처지의 개선도 포함하여 그들의 모든 자유와 해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생산 수단에 대한 불평등한 관계를 청산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에만 사회의 수입, 직종, 교육, 생활 양식 등의 차이도 소멸될 수 있으며 계급도 청산될 수 있다.

또한 현실은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프로레타리아 계급과 부르죠아 계급 간의 차이가 《소멸》, 《균등화》되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증해 줄 따름이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자립적 주민들 속에서 고용 로동을 하는 근로자들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또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한 국제 로동 기구의 자료에 의하면 자립적 주민들 속에서의 고용 로동자의 비중은 계속 장성하고 있다.

나 라	기 간 (년대)	자립적 주민들 중의 고용 로동자의 장성 비률 (%)
미 국	1940~1950	78.3~82.2
불 란 서	1851~1954	54.6~64.9
서 독	1882~1956	64.7~75.4
이 태 리	1936~1954	51.9~60.4
카 나 다	1931~1951	65.5~77.3

도표는 자본주의의 발전이 프로레타리아트의 대렬을 증대시킬 뿐 그들을 《자본가화》, 《비프로레타리아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부르죠아 사회학은 마치 로동자들의 수입이 《장성》되여 자본가와 로동자 간의 계급적 차이가 없어지는듯이 말하고 있으나 현실은 수입에서 차이가 더 커진다는 것을 보여 줄 따름이다.

얼마 전에 미국 상무성은 1960년과 1955년의 미국 가정들의 수입 분배를 대비하는 자료를 발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사회적 계제(階梯)의 최하단에 있는 미국 가정의 20%는 1955년에 가정 총수입액의 5.2%를 받았는데 1960년에는 4.9%를 받았다. 다른 20%의 미국 가정의 몫은 같은 기간에 11.9%에서 11.5%로 떨어졌다. 또 다른 20%의 미국 가정의 몫은 같은 기간에 17%에서 16.8%로 떨어졌다. 그러나 사회적 계제의 최상단에 있는 가정의 5분의 2는 총수입액의 보다 많은 부분을 받았다. 례컨대 최상단에 있는 20%의 가정의 몫은 같은 기간에 가정 총수입액의 43.2%에서 43.8%로 장성하였으며 피라미트의 꼭대기에 있는 미국 가정의 5 분의 1의 몫은 22.7%에서 23%로 장성하였다. 기타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상태도 역시 이와 비슷하다.

이 모든 사실은 자본주의가 발전됨에 따라 수입에서의 차이가 없어지거나, 계급이 《균등화되고》, 《없어진다》는 부르죠아 《사회층》론의 허위성을 폭로해 준다.

한두 장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일부 로동자, 사무원들이 있는 것으로써는 결코 자본가와 로동자 간의 《균등화》, 계급적 차이의 《소멸》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미시간 대학 통계부의 계산에 의하면 미국 가족의 약 1%를 차지하는 큰 주주들은 주권 총수의 3 분의 2를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3 분의 1의 주권의 대부

분도 역시 가족수의 1% 밖에 되지 않는 중류 주권 소유자들의 소유로 되여 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약 2%에 해당하는 소수의 가족이 자기 손안에 주권의 거의 전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로동자들이 몇 장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써 그들이 《기업소 공동의 소유자》로, 《자본가》로 될 수는 없다. 주권을 가지고 있는 로동자가 자본가의 비위에 거슬리는 일을 저질렀을 때에는 자본가는 주권을 무효로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바 이것은 주권을 가진 로동자들의 기업소에 대한 전적인 무권리를 말해 준다.

자본가들이 주권을 로동자, 사무원들에게 파는 것은 자본을 세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로자들의 조그마한 저축까지도 마음 대로 처리할 수 있게 하면서 대자본가들의 립장을 강화해 줄 뿐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은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로동 계급과 자본가 계급 간의 차이가 《소멸된다》느니 호상 《균등화된다》느니 하는 따위의 주장들이 모두 근거 없는 거짓임을 보여 준다.

3

현대 부르죠아 사회학은 미국을 비롯한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계급 투쟁이 사회 성원들의 《류동성》으로 인하여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마치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이 《류동성》을 가지는듯이 즉 《수평선적 류동》으로 또는 《수직선적 류동》으로 한 사회층으로부터 다른 사회층으로 부단히 옮겨 가고 있는듯이 주장한다.

미국 철학자 체이즈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미국에서는 《계급들이 항상 변동하고 있다.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기관들에 있는 승강기처럼, 올라 갔다 내려 갔다 한다.》

부르죠아 사회학은 《류동성》이 실현되는 사회를 《개방된 사회》로, 또 그러한 계급을 《개방된 계급》으로 묘사하며 과거 사회와 계급을 《폐쇄된 사회》, 《폐쇄된 계급》으로 묘사한다. 그들에 의하면 《개방된 사회》에서는 《수직선적 류동》이 경제 기구, 정치 기구, 군대, 교회와 그리고 교육, 결혼 등을 통하여 실현된다는 것이며 이리 하여 가난뱅이도 백만장자로 《류동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개방된 사회》에서 사람들의 《류동성》이 《사회 발전의 기본 동력》으로 또는 《기본적인 추진력》으로 된다고 함으로써 계급 사회 발전의 기본 동력인 계급 투쟁을 무마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류동성》으로 인하여 사회 계급적 모순과 갈등이 없어지고 《…계급 갈등은 일정한 의견 충돌의 성격을 띠게 된다》고 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 투쟁을 은폐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 기구, 정치 기구는 독점 부르죠아지의 수중에서 그들을 위하여 복무하지 가난뱅이를 백만장자로 만들거나 근로자들의 빈궁과 실업을 청산할 수는 없다.

미국을 비롯한 독점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경제는 독점 자본가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따라서 경제 기구도 그들을 위하여 복무한다. 정치는 경제의 집중적인 표현이다. 경제를 장악한 독점은 정치 기구도 장악하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 발전의 특징은 경제를 장악한 독점 재벌들이 직접 국가 기구와 정치 기구를 장악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들은 국가 기구와 정치 기구를 통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와 략탈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기구, 정치 기구와 군대 등을 통하여 빈궁한 사람들이 백만장자로 《류동된다》는 것은 거짓이며 따라서 이는 로동 계급과 근로자들에게 환상을 조성함으로써 그들의 단결과 투쟁을 저지하려는 음흉한 마술에 불과하다.

교육을 통하여 로동자들과 빈궁한 사람들이 백만장자로 된다는 것도 거짓이다.

최근 미국 대통령 죤슨은 미국에 400만 명의 실업자들이 있고 수많은 근로자들이 기아와 빈궁 속에서 살고 있음을 자인하면서 빈궁과 실업의 《뿌리를 빼는》 대책을 소위 자기의 《교서》로서 국회에 내놓았다. 대통령의 《교서》에 의하면 실업과 빈궁의 《뿌리》는 로동자들과 청년들에 대한 교육의 제한성에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실업과 빈궁을 없애자면 이 제한성을 극복하고 기술 숙련과 교육을 강화하면 된다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부르죠아 사회에서 교육이란 결코 근로자들의 희망 여하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에 대한 교육의 제한성은 이 사회 제도 하에서의 불가피적 현상이며 극복될 수 없는 고질병의 하나이다. 결코 교육에다 빈궁의 죄과를 뒤집어 씌울 수는 없다.

부르죠아 사회에서는 교육이 극도로 제한성을 띨 뿐만 아니라 교육에서의 일정한 발전과 새로운 과학 기술의 생산에의 도입 등은 실업자 대렬을 축소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일자리를 위한 경쟁을 더욱 심각화한다. 기술 기능 수준의 제고와 생산에의 과학 기술의 도입이 근로자들의 고통을 덜어 주고 로동 시간을 단축하는 데로 돌려지지 않는 부르죠아 사회에서 이것은 응당한 현상이다.

문제는 이 사회의 경제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조하는 데 있다.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은 혁명 투쟁으로써 이 사회의 정권을 뒤집어 엎고 경제 관계에서의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킴으로써만 자신을 해방할 수 있다.

4

오늘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대다수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부르죠아 사회학자들과 개량주의자들은 또한 《중류 계급》이 증대됨에 따라 자본주의가 《무계급 사회》에로 간다는 《중류 계급》론을 퍼뜨리고 있다.

《중류 계급》론자들은 《중류 계급》이 장성하여 점차 《무계급 사회》에로 나가고 있는 것이 현대의 주요 특징으로 되고 있는듯이, 또 이 《중류 계급》이 자본가 계급도 로동 계급도 모두 흡수함으로써 사회는 《무계급 사회》에로 가고 있는듯이 선전한다.

이 《중류 계급》에 대한 리론은 자본주의로부터 무계급 사회에로의 이행이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통하여 실현된다는 맑스주의 사상을 반대하는 데 돌려지고 있다.

부르죠아 사회학자 제시 버나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계급〉 사회를 향하여 발전하고 있는듯이 생각된다. 그러나 이것은 맑스가 예언한 길로 가는 것은 아니다 …〈무계급〉 사회는 과도적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보다 낮은 계급들을 흡수할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중류 계급의 거대한 확대를 거쳐서 도래하는 것이다.》

또 이 리론은 자본주의 하에서 혁명적 로동 계급 당의 령도적 역할과 중간 계급에 대한 동맹을 반대하는 개량주의 리론에 복무한다.

그들은 로동 계급의 당이 광범한 군중을 령도할 수 없다고 한다. 왜냐 하면 그것은 로동 계급이 《중류 계급》 속

에 《용해》되는 과정을 걷고 있으므로 자립적이고 확고한 계급이 못 되고 동요하는 계급이며 분화되는 계급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로부터 그들은 광범한 주민층의 리익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은 로동 계급과 그의 당이 아니라 《중류 계급》과 그를 대변하는 소부르죠아 개량주의 당이라는 것이다.

부르죠아 사회학자 코울의 말에 의하면 영국에서는 기업주(대기업주들을 제외하고), 사무원, 관리인, 기사, 자유직업자, 관리, 대 중 상인, 학생, 서기, 타자수, 점원, 하급 기술 감독들이 《중류 계급》에 속한다.

물론 중류 계급에 대하여 문제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 어떤 공고한 위치에 있는, 더우기나 다른 계급을 흡수하는 계급으로는 될 수 없다. 그들은 다만 생산 수단의 소유자이기는 하나 그 소유 정도에 있어서 큰 자본가들과 겨룰 수 없는 계급, 따라서 큰 자본가들과 로동 계급 사이에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중간층의 계급일 뿐이다.

사무원, 점원, 기술자, 인테리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들은 생산 수단을 잃고 고용 로동을 하는 층일 뿐이다. 이들은 계급을 형성하지 못 하는 하나의 계층이다.

엥겔스의 표현에 의하면 자본주의 시대의 중류 계급이란 소기업가, 소상인, 수공업자, 농민 등 소부르죠아들이다. 제국주의 시대의 중류 계급도 제국주의 이전의 중간 계급이였던 소기업주, 소상인, 수공업자, 농민들로 구성되여 있다.

자본주의가 발전됨에 따라 모든 계급들이 중류 계급에로 《용해》, 《합류》되여 사회가 《무계급 사회》에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중류 계급은 분화되여 더욱더 적어지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그들의 많지 않은 부분은 대부르죠아로 되고 많은 부분은 령락되여 반프로레타리아 혹은 프로레타리아의 처지로 떨어진다.

이는 자유 경쟁이 지배하는 자본주의하에서 소규모 생산에 대한 대규모 생산의 우월성으로 인한 것이며, 자본주의적 집적과 집중의 법칙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불가피적 현상인 것이다. 례컨대 80 년 간에 걸친 미국에서의 소부르죠아지의 변동 정형을 보면 1870년의 38.5%로부터 1910년에는 26%로, 그리고 1954년에는 11.9%로 각각 축소되였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된 국가 독점 자본주의 시기의 중류 계급은 독점 자본가에 의한 국가 기구의 종속, 기술 과학 혁명, 군비 경쟁, 대자본가의 세금 정책, 주식 시장에서의 협상 행위 등으로 말미암아 급격한 경제적 파산과 계급적인 몰락을 당하게 된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도시에서 뿐만 아니라 농촌에서의 소부르죠아지의 파산과 몰락도 촉진시키고 있다. 부르죠아 출판물들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농업 공황과 농촌에로의 자본과 기술의 침투는 수백만의 중 소 농민들을 파산시키며 주민들을 감소시키고 있다. 따라서 맑스-레닌주의는 자본주의가 봉건 사회에 비하여 사회의 계급적 구조를 부르죠아지와 프로레타리아트의 2대 계급으로 단순화하는 특징을 가진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이것은 물론 자본주의가 중간 계급을 몽땅 없애 치운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편으로 그들은 재생되기도 한다. 레닌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허다한 〈중간층〉이 불가피적으로 자본주의에 의하여 새로이 산출된다.(례컨대 자전거 및 자동차 공업과 같은 대공업의 요구에 따라 전국에 흩어져 있는 부속 공장, 가내 로동, 소제작소 등등) 이들 새로운 소생산자들은 역시 불가피적으로 또다시 프로레타리아트의 대렬에로 전락한다.》
(전집 제 15 권, 31 폐지)

독점 자본가는 어떤 생산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리윤 획득을 위하여 불리할 수도 있다. 독점체들은 이러한 기능을 소생산자, 소기업가의 활동 분야로 남겨 준다. 례컨대 급유소, 자동차 수리 공장, 가정용 전기 기구 수리소 등등과 같은 편의 시설들이 그것이다. 아직 남아 있거나 재생된 중류 계급은 그들의 권리에 대한 독점체의 공세, 경제의 군사화와 세금 정책, 자본의 농촌에로의 침투에 의하여 보잘 것 없는 상태에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독점 자본주의의 발전은 비단 로동자와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소부르죠아지와도 대립된다. 자본주의가 발전되면 될수록 대립은 심화되며 계급적 모순은 가일층 첨예화된다. 따라서 독점체들은 근로자들을 반대하여 새로운 공세를 취하며 파쑈화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중간 계급의 몰락과 로동 계급 대렬의 장성, 이 계급들의 사회 생활 처지의 악화는 로동 계급이 반독점 투쟁에 있어서 광범한 중간 계급들과 통일 전선을 할 수 있는 주객관적 조건이 조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는 로동 계급이 중간 계급에 《용해》, 《흡수》되기 때문에 개량주의 당이 광범한 대중을 령도할 수 있다는 개량주의 리론의 허위성을 보여 준다.

현대 산업, 현대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장성 발전하는 계급은 로동 계급 뿐이다. 따라서 로동 계급만이 유일하게 장래성 있는 공고한 계급이다.

오직 이 계급, 로동 계급과 그의 당만이 독점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농민과 중 소 부르죠아지의 진출을 적극 지지할 수 있으며 그들과 통일 전선을 형성하고 정치, 경제적, 사상적 투쟁에서 튼튼한 동맹자로 될 수 있다.

물론 로동 계급과 그의 당은 농민 계급과 기타 동맹할 수 있는 각계 각층이 자기를 따라 오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 주면서 그들과의 동맹을 의식적으로 맺어야 한다.

그리하여 독점 자본주의의 통치를 뒤집어 엎기 위한 혁명 력량을 부단히 강화하여야 한다.

이 길만이 참으로 로동 계급 뿐만 아니라 농민과 모든 중류 계급까지도 제국주의 부르죠아지의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는 길이다.

✻ ✻

현대 부르죠아 《사회층》론은 그 《리론》의 온갖 각양성에도 불구하고 결국 부르죠아 사회와 현 세계에서의 적대적 계급 관계의 존재와 그 간의 모순, 투쟁을 은폐하는 데 돌려지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리론》은 계급 투쟁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반대하며 각국의 로동 계급과 피착취 근로대중으로 하여금 부르죠아지와 반혁명 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일떠서지 못하도록 하는 방패의 역할을 놀고 있다.

또한 《사회층》론은 적대적 계급 관계와 계급 투쟁을 거부함으로써 다른 편으로 부르죠아 사회에 있어서의 초계급적인 《민주주의》와 《자유》의 구호를 합리화하며 소위 《인민적 자본주의》론을 리론적으로 《론거 짓는》 역할을 놀고 있다.

이 《리론》은 현대 수정주의-개량주의의

자들에게 사상 리론적 무기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놀고 있다.

수정주의-개량주의자들은 《사회층》론에서 《리론적 론거》를 얻어 《계급 협조》의 사상을 전파하고 있으며 계급 투쟁이 없고 고도의 《민주주의》가 발양되는 이른바 《리성적인》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하여 떠들며, 이 사회의 민주주의 《구조 개혁》을 고창하고 있다.

그러나 독점 자본 집단의 착취적이며 침략적이며, 반동적인 정책과 그의 부단한 강화는 부르죠아 《사회층》론자들과 현대 수정주의-개량주의 리론의 허위성과 기만성을 여지 없이 폭로해 주고 있다.

반동적인 《사회층》론은 현 시기 날로 심화되는 각국의 로동 계급과 혁명적 인민들의 계급 투쟁, 혁명 투쟁의 기치를 꺾을 수 없으며 그들의 혁명적 의지를 마비시킬 수 없다.

동시에 그들의 《리론》은 각국에서의 혁명 발전과 시대의 전진에 의하여 더욱더 그 진리성이 확고하게 실증되는 계급 투쟁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결코 훼손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극복되고야 말 것이다.

기업적 지도와 협동적 소유의 공고 발전

김 균 홍

김 일성 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는 사회주의 농촌 경리 제도를 공고 발전시키고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의 수준에 접근시킬 데 대한 문제가 전면적으로 제기되고 해명되여 있다.

협동적 소유를 공고 발전시키며 그것을 전 인민적 소유의 수준에 끌어 올리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기본 문제의 하나로 된다.

협동화가 완성된 이후 로동 계급의 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나가는가 하는 것은 전체 인민 경제의 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반적 성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김 일성 동지는 테제에서 맑스-레닌주의 원칙과 우리 나라에서의 실천적 경험에 기초하여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본 방향과 방도를 천명하였다.

그것은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농민들의 문화 수준과 사상 의식 수준을 제고하는 데 기초하여 협동적 소유 제도를 부단히 개선 완성하며 공업과 농업 간의 직접적인 생산적 련계를 강화하고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 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부단히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농촌 경리에 대한 기업적 지도는 우리 나라 농업 생산 발전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협동 경리의 관리 운영 수준을 결정적으로 제고함으로써 농업 생산력의 발전을 강력히 추동할 뿐만 아니라 협동적 소유를 공고화하고 그것을 전 인민적 소유의 수준에로 접근시킴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협동 경리에 대한 지도에 기업적 방법을 적용한 우리의 경험은 기업적 지도가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발전시키고 협동 농장들을 정치 경제적으로 강화함으로써 협동적 소유를 공고히 하며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에로 끌어 올리는 가장 합리적인 길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1

사회주의 개조가 완성된 이후 농촌에 확립된 협동 경리 제도의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협동적 소유를 물질 기술적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공고화하여야 한다. 협동적 소유를 공고화하는 기초 우에서만 농업 생산을 부단히 앙양시킬 수 있으며 협동적 소유의 전 인민적 소유에로의 발전도 촉진시킬 수 있다.

농촌 경리에 대한 기업적 지도는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지원,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 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의 공고화와 협동 경리의 조직 경제적, 정치 사상적 공고화를 촉진시킨다.

기업적 지도는 농촌 경리에 봉사하는 국가 기업소들의 물질 기술적 수단들과 기술 경제 일'군들을 국가가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함으로써 협동 경리에 대한 국가의 기술 경제적 방조를 결정적으로 강화한다.

이것은 협동적 소유를 물질 기술적으로 더 급속히 공고 발전시킨다.

국가가 현대적인 물질 기술적 수단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농업 생산의 기술 장비를 강화하는 사업을 직접 책임 지고 조직 지도하는 것은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 등 농촌 기술 혁명을 더욱 큰 규모에서 효과적으로 추진시킬 수 있게 한다.

동시에 그것은 기술 일'군들과 농민 대중 간의 협조를 강화하며, 농업 생산에서 분업을 발전시키며, 농장 내부에서와 농장들 호상간에 전문화와 협동화를 합리적으로 조직케 하여 기술 발전, 선진 영농 방법의 도입을 적극 추진시킨다.

우리 나라에서는 기업적 지도가 도입된 후 벼를 비롯한 다수확 작물의 재배 면적이 급속히 확장되였으며 토양 개량, 우량 종자의 선정, 경종 체계의 개선, 3 경 체계와 과학적 시비 체계 등 선진 농법이 광범히 도입되게 되였다.

기업적 지도는 우리 나라 농촌에서 기술 혁명을 더욱 성과적으로 촉진시키게 하였으며 협동 농장들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급속히 강화하게 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의 농촌은 1만 4,000여 개의 수원 시설, 15만 개의 각종 관개 구조물, 3만 1,300 키로 메터에 달하는 수로로 이루어진 조밀한 관개망으로 덮여 있다.

그리고 지난 5 년 간에(1959~1963년) 뜨락또르는 1만 5,000여 대(15마력 환산), 각종 련결 농기계는 4만 4,000 대, 전기 동력 기계는 8만여 대, 중 소 농기계는 근 50만 대가 더 증가하였다.

이 기간에 기계화 작업량은 연경 면적으로 환산하여 145만 정보로부터 1천 200만 정보로 확장되였으며 기계화 작업의 종류는 2 배로 불었다.

화학 비료의 시비량도 1963년에 논에는 정당 420 키로 그람, 밭에는 272 키로 그람 이상에 달하였는데 이것은 1958 년에 비하여 1.7 배로 장성한 것으로 된다.

현재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들에는 800여 개에 달하는 직속 기업소들이 망라되여 있으며 현대적 기술을 소유한 기술자, 전문가의 집단이 있다.

이렇게 강력한 력량을 가진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들의 기업적 지도 기능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이며 이에 따라 협동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보다 강화될 것이다.

농업 생산에 대한 기업적 지도는 협동 경리를 조직 경제적으로, 정치 사상적으로 강화하고 협동적 소유를 공고화하는 데 적극 기여한다.

경영 위원회를 통한 기업적 지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 경리에 대한 기술 지도 체계, 자재 공급 체계 등 정연한 국가적 지도 체계가 확립되게 되였다.

이것은 농업 생산에서 산만성과 자연 발생성의 잔재를 제거하고 협동 경리 제도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조직 동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또한 기업적 지도는 협동 농장들의 관리 운영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 강화하여 협동 경리 제도를 조직 경제적으로 공고히 한다.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영 위원회는 협동 농장들의 관리 운영 사업을 공업 기업소의 관리 운영 수준에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농장 관리 일'군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리 하여 오늘 우리 나라 협동 농장들에서는 계획 작성과 로동 행정, 자금 지출에 대한 통제, 재산 관리 및 농장 재정 활동에 대한 제도와 규률의 강화, 합리적인 부기 계산 체계의 도입 등 사업에서 중요한 개선이 이룩되고 있다.

기업적 지도가 더욱 강화되고 선진적 관리 운영 체계와 계산 체계가 확립되면 협동 농장들에서 생산 활동과 그의 결과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국영 기업소에서와 같이 독립 채산제를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기업적 지도의 실현은 협동 경리들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그의 관리 운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초하여 협동 농장들의 경제 토대를 급속히 강화 발전시킨다.

기업적 지도에 의한 농업 생산의 부단한 앙양은 협동 농장들의 총수입과 축적의 규모를 확대하고 그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게 하며 농민들에 대한 분배 몫을 증대시킬 수 있게 한다.

례컨대 기업적 지도가 확립된 이후 평안 남도 문덕군 협동 농장들의 경제 토대의 장성 정형을 보면 아래와 같다.

	1961년	1963년
총수입	100	117
공동 축적 폰드	100	125
총분배 폰드	100	119

(* 알곡에만 국한시켜 계산한 것임)

농촌 경리에 대한 기업적 지도는 사회주의 협동 경리 제도를 정치 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고 농촌의 사회주의 진지를 더욱 강화하는 데도 적지 않게 기여하고 있다.

경영 위원회의 기업적 지도는 농촌에 대한 국가적 지도, 로동 계급의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농민들을 로동 계급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과정을 촉진시키고 있다.

기업적 지도가 농촌 경리에 현대적 기계 기술을 더욱 훌륭히 도입하고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협조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농민들의 문화 기술 수준을 높이고 그들의 정치적 각성과 의식 수준을 급속히 높이고 있으며 당의 농업 정책을 관철하는 투쟁에 그들을 더욱 힘있게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기업적 지도가 협동적 소유를 물질 기술적으로, 조직 경제적으로, 정치 사상적으로 공고 발전시키며 농촌에 확립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 데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놀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2

농업 협동 경리에 대한 기업적 지도는 협동적 소유를 발전시키고 그것을 전 인민적 소유의 수준에 끌어 올리는 과정을 촉진한다. 기업적 지도는 공업과 농업 간의 직접적인 생산적 련계를 강화하고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 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에로 접근시키는 가장 정당한 길이다.

맑스-레닌주의가 가르치는 바와 같이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는 유기적으로 련결되여야 한다. 문제는 이 련계를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 데 있다.

도시와 농촌 간의 생산물 교류를 원활하게 하는 상업적 련계는 공업, 농업 생산 발전을 자극하며 로농 동맹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한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 간의 련계를 보장함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그들 간의 직접적인 생산적 련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로동 계급은 농촌 경리 발전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그러한 수단들을 자기의 수중에 틀어 쥐고 농촌에 설정된 거점을 통하여 농민들을 도와 주어야 하며 농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직접적인 생산적 련계를 강화할 때에만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정치 사상적 영향을 강화할 수 있으며 공업의 기계 기술, 선진적 생산 문화를 농촌 경리에 더 잘 보급할 수 있으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직접적인 생산적 련계를 약화시키거나 거부하면서 상업적 련계에만 치중한다면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령도적 역할을 약화시키며 협동 농장들 간의 경제적 토대와 농민들의 생활 상 차이를 심하게 하여 모든 농장을 다 같이 발전시키는 데 난관을 조성한다.

그것은 협동적 소유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하며 사회주의 농촌 건설과 전반적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한다.

직접적인 생산적 련계를 통한 두 소유 간의 결합에 있어서도 농촌 경리에 복무하는 국가 기업소들이 개별적으로, 분산적으로 사업할 때에는 농업 생산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없으며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령도적 역할을 고도로 높일 수 없다.

오직 국가적 소유의 물질, 기술적 력량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협동 농장들을 전면적으로, 책임적으로 지도하는 기업적 방법만이 농업에 대한 국가의 생산적 방조를 가장 훌륭히 실현할 수 있으며 따라서 로동 계급과 국가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백방으로 높일 수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두 소유 간의 결합은 국가 기업소들과 협동 농장들 간의 개별적인 결합인 것이 아니라 유일적 지휘 체계에 의한 통일적이고 전면적인 결합이며, 전 인민적 소유가 협동적 소유의 생산 및 경영 활동의 모든 령역에 뿌리 깊이 혈관을 뻗치고 강력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그러한 결합이다.

기업적 지도는 국가가 현대적 농기계들과 설비 자재들, 기술 일'군들을 튼튼히 틀어 쥐고 협동적 소유에 폭 넓게, 그리고 깊이 침투하여 생산을 직접 지도한다. 이리 하여 직접적인 농업 생산 과정에서 국가적 소유의 생산 수단, 로동력은 협동적 소유의 그것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된다.

공업의 발전에 따라 국가적 지원이 더욱 강화되고 농촌 기술 혁명이 촉진되면 될수록 농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국가적 소유의 비중이 점차 증대되면서도 협동적 소유를 강화한다.

숙천군에서의 다음과 같은 자료는 이러한 일반적 경향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표 (%) \ 년도	1961	1962	1963
국가적 소유의 비중	39.1	41.6	43.2
협동적 소유의 비중	60.9	58.4	56.8
국가적 소유의 몫의 장성	100	113.2	127.6
협동적 소유의 몫의 장성	100	101.9	107.5

(국가적 소유의 비중은 농업 생산에 투하된 총체적 가치 중에서 국가적 소유에 속한 생산 수단의 마모 가치와 로력의 지출이 포함된 것이다. —숙천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가 제공한 자료임)

이와 같이 기업적 지도 밑에서의 두 소유의 련계는 협동적 소유를 다치거나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존중히 하고 공고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은 협동적 소유를 그 대로 보존하면서 생산 수단의 리용 과정, 생산 과정에서 국가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고 농업 생산에서 국가적 소유의 몫을 점차 크게 하며 협동적 소유의 사회화 수준을 높이게 한다.

공업의 발전에 따라 전 인민적 소유에 속하는 현대적인 물질 기술적 수단들이 농업 생산에서 점차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협동적 소유는 전 인민적 소유에로 더욱더 접근하게 될 것이다.

실로 경영 위원회의 기업적 지도는 《협동적 소유에 대한 국가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이 두 소유 형태의 련계를 더욱 밀접하게 함으로써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에로 부단히 접근시키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김 일성,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를 더욱 강화 발전시킬 데 대하여》)이다.

직접적인 생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 간의 밀접한 결합은 동시에 생산 과정에서 《사람들의 활동의 호상 교환》 관계를 변화시킨다.

기업적 지도를 실현하는 경영 위원회는 군 내의 기술적 거점들 및 기술 경제적 력량들과 협동 농장들의 활동을 유일한 계획화 체계에 망라시키고 통일적으로 지도함으로써 농업 생산 행정에서 맺어지는 로동 계급과 농민 간, 농민들 호상간의 협조 관계를 강화 발전시키고 있다.

농기계 작업소, 관개 관리소, 농기구 공장 등 국가 기업소들이 제각기 자체의 기술 수단들을 가지고 농촌 경리에 복무할 때에는 그의 효과를 원만히 발양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맺어지는 농민과 로동 계급 간의 관계가 분산적이며 따라서 협조 관계가 응당한 수준에서 보장될 수 없다.

기업적 지도는 국가 기업소들과 협동 농장들을 유일적인 지휘 체계에 망라시키고 그들의 모든 활동이 전면적으로 맞물리도록 련계를 계획적으로 맺게 한다.

이것은 국가 기업소 로동자들 속에서 협동 농장 사업에 대한 책임성과 주인다운 립장을 강화하며 또한 농민들을 로동 계급에 더욱 의거하게 하고 로동 계급의 지원을 더욱 원만히 받을 수 있게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기업적 지도가 실현된 이후 농업 생산 행정에서의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협조 관계가 전례 없이 강화되였다.

례하면 경영 위원회의 기업적 지도 밑에 협동 농장들에 고착되게 된 뜨락또르 운전수들은 농기계의 가동률을 더욱 높이고 기계화 작업의 종류와 범위를 확대하여 작업의 질을 보장함으로써 농민들의 일을 헐하게 하여 주면서 생산을 급속히 장성시키기 위하여 모든 지혜와 힘을 바치고 있다. 또 이에 따라 농민들은 자기의 힘과 기자재들을 제공하여 뜨락또르 운전수들의 사업에서 제기되는 애로들을 풀어 주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

기업적 지도는 농민들 호상간의 협조 관계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한다.

이것은 군 내의 모든 협동 농장들을 하나의 경영 활동 단위와 같이 지도함으로써 여러 농장들의 힘을 단합하여 생산과 건설을 조직하는 데서, 협동 농장들 간의 호상 방조를 강화하는 데서, 지대적 조건에 맞게 군내 농장들 간의 분업과 협업을 발전시키는 데서 표현되고 있다.

례컨대 기업적 지도 밑에서는 관개 공사, 중 소 발전소의 건설, ·토지 관리와 개간 등 한 개 농장의 힘만으로써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몇 개 농장의 공동의 힘으로 해결되고 있다.

또한 적지적작 원칙에 의한 농업 생산의 전문화와 다각화가 전 군적 범위에서 광범히 조직되고 농장들이 서로 협력하여 전반적 앙양을 달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여 농민들 호상간의 협조 관계가 농장과 농장 간에서, 작업반 간에서와 작업반 내부에서 날로 더욱 강화 발전되고 있다.

다음으로 기업적 지도는 농업 협동 경리에서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더욱 잘 실현할 수 있도록 분배 관계를 개선한다.

농업 협동 경리에서는 공업과는 달리 자연 지리적 조건의 차이 등으로 말미암아 지대 간, 협동 농장 간에서 동일한 로동에 대하여서도 분배 몫에 일정한 차이가 있다.

기업적 지도는 모든 협동 농장들의 기술 장비를 강화하도록 보장하고 생산 활동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농업 로동의 생산 능률을 더욱 높이며 모든 농장원들이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동일한 분배를 받게 하는 과정을 촉진시킨다.

특히 경영 위원회는 조건이 불리한 지대와 농장들에 대하여 지도와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생산을 급속히 장성시키며 축적과 소비의 호상 관계에서는 부유한 농장에 비하여 소비의 몫을 보다 크게 하여 주는 방법 등으로 분배에서의 불균형을 조절하고 있다.

기업적 지도는 농업 로동과 공업 로동의 차이를 축소시키는 데 적극 기여하며 로동 계급과 농민의 생활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킴에 있어서도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기업적 지도는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를 결정적으로 개선하고 농업 생산을 급속히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협동적 소유를 부단히 공고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촉진시키는 위력한 무기로 되고 있다.

* *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전 과정, 특히 새 농업 지도 체계가 수립된 이후의 현실은 협동적 소유를 공고 발전시키며 그것을 전 인민적 소유로 끌어 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업과 농업 간의 직접적인 생산적 련계를 백방으로 강화하며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 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부단히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이라고 한 테제의 명제의 정당성을 확증하여 주고 있다.

우리 나라의 현실은 또한 기업적 지도가 사회주의 농촌 경리에 대한 국가적 지도의 가장 훌륭한 형태일 뿐만 아니라 두 소유 간의 이러한 결합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우월한 지도 방법으로 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농촌 경리에 대한 기업적 지도가 더욱 완성되고 그의 우월성과 위대한 생활력이 남김 없이 구현될 때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농촌 문제는 더욱 성과적으로 해결되여 나갈 것이며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애는 데 있어서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경리 발전에서의 집약화

김 철 영

김 일성 동지의 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는 맑스-레닌주의 농업 리론과 농촌 경리 지도에서 얻은 경험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하에서 농업 생산력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전면적인 대답을 주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농촌 경리의 집약화 수준을 제고할 데 대한 문제이다.

집약화는 사회주의 하에서 농업 생산 조직의 기본이며 농업 생산의 앙양을 위한 담보이다.

우리 당은 농업 발전의 력사적 경향성과 사회주의 농업 경영의 본질, 우리 나라 농업 생산의 특성에 대한 심중한 고려에 기초하여 농촌 경리의 집약화를 영농 사업에서의 기본 방침으로 규정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테제에서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농촌 경리의 집약화—이것은 영농 사업에서의 우리 당의 기본 방침이다. 현대적 과학, 기술에 기초한 집약 농법은 가장 선진적인 영농 방법이며 그것은 농사에서 다수확의 기본으로 된다.》

그러면 우리 당이 농촌 경리의 집약화를 영농 사업에서의 기본 방침으로 규정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우선 농촌 경리 발전의 력사적 경향성에 대한 과학적인 타산에서 출발한 것이다.

농업 생산은 그 발전의 견지에서 볼 때 부단히 집약화되여 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경향성은 농업에서 기본 생산 수단인 토지의 특성으로부터 흘러 나온다.

사람들은 자연을 개조함으로써 불모지를 리용이 가능한 땅으로, 나아가서는 옥토로 전환시킬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결코 새로운 토지를 만들 수는 없다. 파종 면적의 확장에는 어쨌든 일정한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사정은 새 토지를 계속 쟁취하는 방식에 의한 생산의 무한한 증대는 결국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로부터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집약화에 의하여 농업 생산을 증대시킬 수 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게 된다.

농업에서의 기본 생산 수단인 토지는 또한 다른 생산 수단과는 달리 잘만 관리한다면 마멸 또는 훼손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부단히 제고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맑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비옥도는, 그것이 토지의 객관적 속성이기는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언제나 일정한 관계 즉 농업 화학 및 농업 기계학의

소여 발전 수준에 대한 관계를 포함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발전 수준에 따라 변화한다.》(《자본론》 제 3 권, 2 분책, 260 페지)

이것은 토지의 비옥도가 그의 고유한 속성이기는 하지만 생산력의 장성, 과학과 기술의 도입에 의하여 부단히 제고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요컨대 파종 면적의 확장에는 한도가 있지만 토지의 생산성은 무한히 제고될 수 있다.

토지가 가지는 이러한 특성은 집약화에 기초하여 농업 생산을 계속 증대시킬 수 있는 객관적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

우리 당이 농촌 경리의 집약화를 영농 사업에서의 기본 방침으로 규정한 것은 또한 사회주의 농업 경영의 근본 요구로부터 흘러 나온 것이다.

집약화는 농업 생산의 중요 요소들인 토지, 기술, 로동의 결합 과정을 말한다. 즉 그것은 단위 생산물에 대한 로동의 지출을 감소시키면서 단위 면적에서 최대한의 생산물을 내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에 생산 수단과 로동을 추가적으로 투하하는 것이다.

집약화의 목적과 내용은, 단위 면적에 대한 최소한의 지출로써 최대한의 수확을 얻는 것을 과업으로 하는 사회주의 농업 경영의 근본 요구와 전적으로 합치된다.

사회주의 하에서는 기계제 공업의 급속한 발전과 그 강력한 지원 하에 이 과업 수행이 훌륭히 보장된다.

우리 당이 농촌 경리의 집약화를 영농 사업에서의 기본 방침으로 규정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 농업 생산의 특성과 농업 부문의 제반 조건에 대한 심중한 타산에서 출발한 것이다.

우리 나라는 토지 면적이 량적으로 아주 제한되여 있고 그것조차도 척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앞으로 개간할 수 있는 땅도 우리 나라에는 많지 못 하다.

우리 농업에서는 간혼작과 2모작 체계가 광범히 도입되여 있고 전형적인 관수 농법에 의존하는 논벼 재배가 지배적이다.

한편 우리 나라에서 공업 발전 속도는 비상히 빠르며 우리 나라의 인구 밀도는 퍽 높다.

이 모든 자연 지리적, 사회 경제적 조건들은 우리 나라에서 농업 생산 발전의 출로를 농촌 경리의 집약화에서 찾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우리 당은 농촌 경리의 집약화를 영농 사업에서의 기본 방침으로 규정하고 해방 직후부터 특히는 협동화를 진행하면서부터 그 수준 제고를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우리 당의 정확한 방침과 현명한 령도, 농민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우리 나라 농촌 경리의 집약화 수준은 결정적으로 제고되였다.

그것은 관개 면적의 급격한 확대, 농업 생산에서 기계화 수준의 제고, 단위 면적 당 자급 비료와 화학 비료 시비량의 증대, 토지 리용률의 장성, 농업 생산의 부문 별 구조의 변화 등에서 명백히 표현되고 있다.

다음 통계표는 농촌 경리의 집약화 수준이 제고된 정형을 뚜렷이 보여 준다.

농촌 경리 집약화 수준의 제고

	총경지 면적 중 뜨락또르에 의한 기경률(춘경)(%)	경지 정당 뜨락또르 작업량(연경정보)	논 정당 관개 면적(정보)	경지정당 화학비료의시비량(kg)
1956년	10.5	0.36	0.74	113
1960년	36.0	3.59	0.93	160
1963년	—	—	1.00	300

상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년간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 경리의 집약화 수준이 비상히 제고되였다.

이 뿐만 아니라 농촌 경리 집약화의 경제적 효과성도 급속히 높아졌다.

그것은 경지 정당 생산액의 급격한 장성에서 명백히 표현되고 있다. 례컨대 1959년에 비하여 1961년에 그것은 벌써 1.3 배로 제고되였다.

농촌 경리 집약화 수준의 제고는 우리 나라에서 농업 생산의 급속한 장성을 가져 왔다.

협동화 이후 5 년 간에만 하더라도 알곡 총수확고는 1.5 배로 장성하였다. 그리 하여 전후 계속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로 남아 있었던 식량 문제가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완전히 해결되였다.

농경지가 국토의 16% 밖에 안 되며 그것조차 척박한 땅으로 알려져 있으며 농작물이 해마다 한해, 수해, 랭해를 받던 우리 나라에서 또한 과거에 농업 기술이 매우 락후하였으며 더우기 전쟁으로 인하여 그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파괴되고 로력과 축력이 심히 부족하였던 우리 나라에서 농업 생산의 급속한 발전은 무엇을 말하여 주는가.

그것은 사회주의 농업 발전을 위한 유일하게 정당한 길은 집약화의 길이며 오직 농촌 경리의 집약화에 의거할 때만 농업 생산의 부단한 앙양이 보장된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 ❊

우리 당은 사회주의 농촌 경리를 집약화하는 행정에서 거대한 성과와 귀중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농촌 경리의 집약화에서 우리가 얻은 가장 중요한 경험은 그의 중요 방도인 농촌 기술 혁명의 내용과 그 순차를 정확하게 설정한 것이다.

우리 당은 농업 생산의 특성, 영농 체계 및 공업 발전 수준에 대한 과학적인 타산에 기초하여 농촌 기술 혁명의 내용을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로 규정하고 그것을 통일적으로 결합시켜 전면적으로 실현하였다.

농촌 기술 혁명은 집약화 수준 제고를 위한 중요 방도이다. 기술 혁명은 집약화가 제기하는 과업—생산에서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면서 단위 면적에서의 수확고를 장성시키는 과업 수행에 철저히 복무하여야 한다.

그런데 농촌 경리 집약화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기술 혁명의 모든 측면들이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농촌 기술 혁명의 중요 측면인 기계화, 전기화는 주로 생산에의 기계의 적용을 통하여 로력을 절약하고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며 기술 혁명의 다른 측면인 화학화, 수리화는 비료와 물의 작용을 통하여 토지의 비옥도를 증가시켜 단위 면적 당 생산성을 제고케 한다.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이 농촌 기술 혁명의 내용을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의 네 가지로 규정하고 그것을 통일적으로 결합시켜 전면적으로 실현한 객관적 근거가 있다.

또한 우리 당은 농촌 기술 혁명의 순차를 나라의 실정에 맞게 가장 합리적으로 설정하였다.

우리 당은 농촌 경리의 수리화를 선행시키면서 나라의 제반 조건이 성숙됨에 따라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전면적으로 추진시켰다.

우리 나라에서는 년중 강우량의 시기별 분포가 몹시 고르지 못 하며 관수 농법에 의존하는 논 농사가 농업에서 기본이며 수리화에서 기본 자재로 되는 세멘트 생산이 기계 생산보다는 비교적 용이하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수리화를 선행시켰다.

우리 당은 농촌 경리에 복무하는 중공업의 급격한 발전에 의거하여 뜨락또르, 화물 자동차를 비롯한 현대적 농기계들과 각종의 화학 비료들, 다양한 농약들을 농촌에 생산 공급하고 그에 기초하여 농촌 경리의 기계화, 화학화를 전면적으로 추진시켰다.

이와 같이 우리는 농촌 기술 혁명에서 수리화를 선행시키면서 조건이 조성됨에 따라 이여의 모든 측면을 곧 따라 세웠다.

우리 나라에서 실시된 농촌 기술 혁명은 하나의 명백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농촌 경리의 집약화가 제기하는 두 가지 과업—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와 단위 면적 당 수확고의 장성이 동시에 고려되면서도 그의 중점이 우선 수확고의 장성에 떨어진 사실이다.

이러한 특징은 우리 나라에서 토지가 제한되여 있고 인구 밀도가 높다는 사정과 식량을 자급 자족해야 할 사정에 의하여 규정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나라 농촌 기술 혁명 수행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정식화하였다.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는 농촌 기술 혁명의 네 가지 기본 구성 부분이다. 기계화, 전기화에만 치우치고 수리화, 화학화를 소홀히 한다면 농사에서 수확고를 부단히 높일 수 없다. 반대로 수리화, 화학화에만 힘을 넣고 기계화, 전기화를 하지 않는다면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일 수 없고 농민들의 힘든 로동을 덜어 줄 수 없다.

공업의 발전 정도와 농촌의 구체적 형편에 따라 선후차는 있을 수 있지만 사회주의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참말로 튼튼히 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촌 기술 혁명의 네 가지 기본 과업—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실시하여야 한다.》(테제)

농촌 기술 혁명의 내용과 그 순차에 대한 규정은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실천에서 우리가 얻은 귀중한 경험이다.

이것은 우리와 류사한 조건에서 민족 경제 건설에 들어 서는 많은 나라들에 대한 모범으로 된다.

농촌 경리의 집약화는 합리적인 영농 체계를 전제로 한다.

만약 집약화가 생산의 옳은 배치와 전문화에 의하여 안받침되지 않을 때 그것은 응당한 경제적 효과성을 나타내지 못 한다.

우리 당은 농업을 직접 지도하게 된 그 초시기부터 농업 생산 구조를 개선하는

문제에 심중한 주의를 돌렸다.

우리 당은 알곡 생산을 위주로 하면서 공예 작물, 축산업, 과실 생산, 잠업 등 부문들을 동시에 급속히 발전시킬 데 대한 농업 발전 방향에 근거하여 생산의 배치와 전문화를 계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과거 사회로부터 물려 받은 불합리한 농업 생산 구조를 우리 사회의 요구에 맞게 결정적으로 개선하였다.

농촌 기술 혁명과 합리적인 영농 체계에 기초하여 집약 농법이 더욱더 발전되였다.

집약 농법의 도입에서 우리 당은 토지의 효과적인 리용에 제 1 차적인 주의를 돌렸다. 우리는 토지를 개량하였으며 3경 체계와 급수 및 과학적 시비 체계를 도입하였으며 벼를 비롯한 다수확 작물의 재배 면적을 현저히 확장하였다.

우리 당은 농민들의 경험과 기술자들의 협조를 강화하여 현지의 자연 경제적 조건에 적합한 영농 방법들을 탐색케 하며 보급시키도록 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 집약 농법의 기본 내용은, 토지를 적극 개량하며 육종 및 채종 사업을 강화하며 과학적인 기경 체계와 시비 체계 및 급수 체계를 확립하며 2모작과 간혼작을 광범히 실시하며 고산 지대 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농촌 기술 혁명의 촉진, 농업 생산 구조의 개선 그에 기초한 집약 농법의 가일층의 발전, 이것이 우리 나라에서 농촌 경리 집약화 수준의 제고를 가져 온 요인들이다.

농업 생산 발전의 기본 담보인 농촌 경리 집약화 수준의 제고—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나라 사회 경제 발전의 합법칙적인 현상이다.

우리 나라에서 실시된 농촌 경리 집약화의 과정은 사이비 과학적인 《토지 수확 체감의 법칙》의 부당성을 립증하였다.

레닌은 이 《법칙》을 설교하는 자들의 본질을 폭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과학과 기술의 진보는 《상대적으로 (때로는 절대적으로까지) 감소되는 농촌 인구로 하여금 증대하는 주민 대중을 위한 증대하는 농작물 량을 생산할》(레닌 전집 제 5 권 1 분책, 163 페지) 가능성을 준다.

1946~1960 년 간에 우리 나라에서 농업 생산은 224%로 장성되였는데 인구는 그간 117%로 증가하였고 경지 면적은 102.9%로 확장되였다.

인구의 장성 및 파종 면적의 확장과 농업 생산 발전 간의 이러한 호상 관계는 무엇을 말하여 주는가,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나라 농촌 경리의 집약화 수준이 결정적으로 제고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로동 생산 능률과 정당 수확고가 비상히 장성되였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농촌 경리 집약화의 실천을 통하여 우리는 맑스-레닌주의 농업—토지 리론에서의 기본 명제,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토지의 생산성은 무한히 제고된다는 명제의 정당성을 보여 주었다.

농촌 경리의 집약화 행정에서 우리가 얻은 중요한 경험은 또한 집약화의 촉진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인 경리의 규모를 설정하였고 가장 선진적인 지도 방법, 지도 단위를 규정한 그것이다.

농촌 기술 혁명의 촉진은 농촌 경리의 집약화, 즉 단위 면적에의 투자의 집적을 가져 온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나 일정한 생산 관계 속에서 진행된다. 그러므로 농업의 집약화는 지도 체계, 경영 조직이 어떠한가에 따라 촉진 또는 저

애 당한다.

레닌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리론적으로는 임의의 토지 면적에의 임의의 규모의 자본의 임의의 투하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현존하는 경제적, 기술적, 문화적 및 기타 제 조건에 〈의존한다〉는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모든 문제는 바로 소여의 나라에서 소여의 시기에 어떠한 조건이 현존하는가에 있는 것이다.》(레닌 전집 제 22 권, 84~85 페지)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경리 규모를 설정하는 문제에 특별한 주의를 돌렸다. 그것은 경리 규모가 토지의 합리적 리용, 로력 조직의 개선, 경리의 다각적 발전, 농업 기계화 및 농촌 건설 사업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 당은 협동화가 끝난 이후 리 행정 구역 단위로 협동 농장들을 통합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경리 규모는 농호수에서 평균 300 호 이상이며 농경지에서 500여 정보로 되고 있다.

우리 농장 관리 간부들의 수준, 그들의 경리 운영의 경험과 농장들의 기술 수준에 비추어 이러한 정도의 규모가 농업 집약화의 촉진을 위하여 가장 적당하다는 것을 생활은 잘 보여 주었다.

또한 우리 당은 농촌 경리의 집약화를 실현하는 데서 군을 지도 단위로 선정하였고 공업을 지도하는 것과 같은 방법을 농업을 지도하는 데 적용하였다.

오늘 우리의 군은 농촌 기술 혁명의 수행과 농촌 경리 집약화의 실현을 위한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군에는 평균 1만 정보 내외의 토지와 6,000 호의 농호가 있으며 경험과 기술을 가진 적지 않은 간부들이 있다.

또한 군에는 농촌 기술 혁명의 거점인 농기계 작업소를 비롯한 국가 기업소들이 있으며 많은 기술 수단들이 집중되여 있다.

군에 있는 토지, 기술, 로동을 합리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은 우리의 현 조건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또한 절실히 필요한 일이다. 왜냐 하면 그것을 어떻게 결합시키는가 하는 거기에 오늘 집약화를 위한 가장 큰 예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당은 군을 지도 단위로 하면서 협동 농장에 대한 지도에 기업적 방법을 적용하여 농촌 경리의 집약화를 급속히 촉진하였다.

농업의 경리 규모가 커지고 그 기술 장비가 현대화되는 조건에서 농업에 대한 관리 방법이 공업의 선진적인 관리 방법에 접근하는 것은 응당한 일이다.

기업적 방법에 의한 지도는 농촌 경리의 집약화에서 거대한 우월성을 발휘하였다.

그것은 농촌 기술 혁명을 촉진시켰으며 토지, 농기계 기타 생산 수단들과 로동력의 합리적인 결합을 강화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은 리를 농업의 경리 규모로 하고 군을 지도 단위로 하면서 공업을 지도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인 기업적 방법을 농업 생산 지도에 적용하여 농촌 경리의 집약화를 성과있게 실현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 농촌 경리를 집약화하는 행정에서 우리가 얻은 또 하나의 경험이다.

우리 당은 합리적인 경리 운영 체계와 방법을 수립하고 그에 의거하여 농촌 기술 혁명을 수행하며 농업 생산 구조를 개선하며 집약 농법을 광범히 실

시함으로써 사회주의 농촌 경리의 집약화에서 전례 없는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고 또 달성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농업 집약화 과정은 사회주의가 소농 경리나 자본주의 경리보다 집약화를 위한 훨씬 커다란 가능성을 지어 준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 주었다.

생산 규모가 작고 기술 토대가 약한 소농 경리는 토지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실시할 수 없다. 그것은 기껏하여 한 가족 및 역축의 힘에 의거하여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집약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규모의 자본주의적 경리는 소농 경리보다는 집약화를 위하여 기술 경제적 면에서 유리한 조건에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리도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 주기적으로 래습하는 경제 위기, 도시와 농촌 간의 대립으로 말미암아 농업의 집약화를 적극적으로 추진시키지 못 한다.

사회주의 농촌 경리의 집약화를 실현한 우리의 경험은 농업에서의 생산의 집적을 의미하는 집약화가 공업에서의 그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가장 훌륭히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

우리는 사회주의 농촌 경리의 집약화에서 실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풍부한 경험을 얻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이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농촌 경리의 집약화를 더욱 전진시켜야 할 중대한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테제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집약적 영농 방법에서 이미 얻은 풍부한 경험을 살리고 더욱 발전시켜 농작물의 단위 당 수확고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토지를 정리하고 개량하며 가능한 모든 곳에서 2모작 체계를 도입하며 간작, 혼작 등을 더 광범히 실시하여야 한다. 육종 사업을 강화하여 종자를 개량하며 자급 비료를 더 많이 내며 모든 영농 작업을 제때에 질적으로 수행하고 논발을 알뜰하게 가꾸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테제가 제시한 과업을 해결할 수 있는 예비와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례컨대 우리 나라 모든 지역의 집약화 정도는 동일하지 않으며 그의 효과성도 각이한 수준에 있다. 1961년 현재 집약화 수준과 경제적 효과성이 제일 높은 도는 낮은 도에 비하여 뜨락또르 작업량은 12 배 이상, 화학비료 시비량은 3 배 이상, 경지 정당 생산액은 2 배 이상 각각 높다.

우리는 이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모조리 동원하여 농촌 경리를 부단히 집약화함으로써 농업 생산의 가일층의 앙양을 보장하여야 한다.

《3.24 데모》에 대하여

전 웅 현

범죄적인 《한 일 회담》을 반대하여 일어 난 남조선 학생 청년들과 인민들의 《3.24 데모》는 현 시기 남조선 사회의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을 반영한 매우 중대한 사변이다.

오늘 남조선에는 미제의 조종에 의한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재침 책동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위험이 드리우고 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한 일 회담》의 막 뒤에서 남조선에 대한 정치, 경제, 문화적 침략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박 정희 일당은 그들을 적극 맞아 들이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 인민들이 미 일 제국주의의 2중의 식민지 노예로 전락되게 될 엄중한 사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범죄적인 《한 일 회담》을 반대하는 남조선 학생 청년들과 인민들의 《3.24 데모》는 미제의 조종하에 감행되는 일본 군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박 정희 도당의 음모 책동을 반대하며 나라의 자주적 발전을 위한 정의롭고 애국적인 투쟁이다.

지난 최고 인민 회의 제 3 기 제 3 차 회의에서 채택된 범죄적 《한 일 회담》을 분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할 데 대한 호소문은 남조선 학생 청년들과 인민들의 투쟁을 무한히 고무하고 있다.

애국의 불'길

지난 3월 24일부터 1 주일 간에 걸쳐 남조선에서는 범죄적인 《한 일 회담》을 반대하는 학생 청년들과 인민들의 항쟁이 폭발되였다.

남조선의 도시와 마을들은 항쟁의 거센 불'길에 휩싸였고 시위자들의 웨침소리는 천지를 진감하였다.

분노에 찬 남조선 학생 청년들은 4.19 항쟁의 피가 어린 거리와 광장에 떨쳐 나섰으며 괴뢰 《국회 의사당》, 《중앙청》, 《청와대》, 《뉴코리아 호텔》로 육박하였다.

괴뢰 경찰과 경비대들의 곤봉도, 바리케트도, 최루탄도 노한 파도처럼 일어 난 항쟁의 불'길을 가로막을 수 없었다.

남조선 학생 청년들과 인민들의 이 《3.24 데모》는 일련의 중요한 특징들을 보여 주고 있다.

《3.24 데모》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이 점차 높아 가고 있는 사실이다.

남조선 학생 청년들과 인민들은 시위에 돌입한 첫날부터 일본 군국주의와 남조선 반동 계층들에게 투쟁의 화살을 집중하였다.

시위에 떨쳐 나선 남조선 학생 청년들과 인민들은 《한 일 회담을 즉시 중지하라》는 구호와 함께 《일본 군국주의를 박살하라》, 《쪽발이 물러 가라》, 《일제의 척후병인 일본 상사를 몰아 내자》 등 일제의 재침을 규탄하는 구호를 웨쳤다.

다른 한편 시위자들은 《제 2의 리 완용은 물러 가라》, 《박 정희 정권을 타도하라》, 《박 정희와 김 종필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제기하였다.

금번 시위에서 주목되는 사실은 서울, 대구, 부산 등 도시에서 학생들이 일본의 수급 전범자인 도죠 히데끼와 현 일본 수상 이께다 그리고 매국 역적 박 정희를 비유한 가장물을 만들어 《화형》에 처한 것이다.

이것은 《3.24 데모》가 남조선을 재침하려는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반항과 박 정희 정권의 《정책》 전반에 대한 항거의 표시이다.

동시에 시위자들은 미 제국주의에 대하여 투쟁의 화살을 돌리고 있으며 조국의 자주적 통일에 대한 지향을 나타내고 있다.

시위에서는 《미국은 한 일 회담에 관여 말라》, 《한 일 회담만이 현 정권의 출로가 아님을 알라》, 《자립 경제는 한 일 회담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등 구호가 제기되였으며 또한 시위자들은 《한 일 회담》을 조기 타결하려는 박 정희를 지지한 남조선 주재 미국 《뉴욕 타임스》지 기자를 추방하라고 요구하였다.

이것은 남조선 인민들이 외세 의존을 반대하고 남북 조선 인민들의 민족 주체 력량에 의하여 조국을 통일할 데 대한 지향의 발현이다.

항쟁에서 제기된 명백한 정치적 구호는 더욱 광범한 학생 청년들을 투쟁에 불러 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다.

금번 항쟁에서 표현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항쟁이 대규모적이고 련대성이 강화된 것이다.

서울 대학교, 고려 대학교, 연세 대학교 및 대광 고등 학교 등 서울시내 몇개 학교 학생들이 처음 올린 투쟁의 불'길은 삽시에 남조선 전 지역에 확대되였다.

남조선의 중요 도시는 물론 적지 않은 어촌에서도 항쟁이 폭발되였다.

항쟁에는 대학생들과 함께 중 고등 학교 학생들이 망라되였으며 많은 녀학생들까지 참가하였다.

이리 하여 금번 항쟁에 참가한 남조선 학생 청년들과 시민들의 수는 20여만 명에 달하며 23 개의 도시와 어촌을 포괄하고 있다.

서울시내 각 대학생 대표들은 한 자리에 모여 서로 보조를 맞출 데 대한 회합을 가졌으며 지방들에서도 학교 단위로 집회 또는 회합을 가졌다.

이러한 결과 매개 지방, 매개 학교들에서 시간 상 차이는 있지만 거의 동시에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동일한 형태의 항쟁을 전개하였다.

이상의 사실은 《3.24 데모》가 그의 규모와 련대성에 있어서 4.19 봉기에 못지 않는 항쟁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일본 통신들까지도 금번 남조선 학생 청년들의 항쟁에 대하여 《류혈을 동반한 이와 같은 대시위는 리 승만 정권을 타도한 1960년의 4.19 학생 시위 이래 처음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론평하고 있다.

금번 항쟁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 또한 새 정치, 새 제도에 대한 지향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항쟁에 궐기한 남조선 학생 청년들은 여당과 함께 야당을 반대하는 구호도 제기하고 있다.

남조선의 적지 않은 도시들에서 시위자들이 제기한 구호에는 《야당들은 우리를 리용하지 말라》고 지적되여 있다.

바로 이러한 구호가 《대일 굴욕 외교 반대 투쟁 위원회》의 간판 밑에 인민들의 반일 감정을 정권욕 실현에 리용하려는 구 정치인들의 책동이 로골화되고 있던 시기와 때를 같이 하여 제기되였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리 승만을 비롯한 남조선의 력대 위정자들의 학정을 겪은 남조선 인민들은 그 누구도 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 줄 수 없으며 여당이나 야당이나를 막론하고 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이리 하여 금번 항쟁은 박 정희 도당과 함께 야당의 음흉한 책동을 폭로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이상의 모든 사실은 남조선에서 미 일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나라의 자주 통일을 위한 혁명의 객관적 정세가 점차적이나마 성숙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금번 남조선에서 폭발된 《3.24 데모》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남조선 학생 청년들과 인민들의 《3.24 데모》는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에 큰 타격을 가하였으며 박 정희 통치 지반을 뒤흔들어 놓았다.

미제는 저들의 뜻 대로 침략과 략탈 정책을 실현할 수 없으며 박 정희 도당은 반인민적 정책을 더는 계속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였다.

특히 금번 항쟁은 《한 일 회담》의 조기 타결을 파탄시키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본래 미제의 조종 하에 박 정희 도당은 《한 일 회담》을 4월 중에 끝내고 5월에는 남조선 괴뢰 《국회》에서 비준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금번 항쟁에 질겁한 박 정희와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한 일 회담》의 타결을 연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 출판물들도 《한 일 회담》에는 《봄 방학》이 도래했다고 쓰고 있다.

금번 항쟁은 남조선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위한 투쟁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금번 시위는 남조선 괴뢰 정권의 법 질서를 여지 없이 무너뜨렸다.

박 정희 괴뢰 정권의 《시위법》에 의하면 시위를 하는 경우에는 최하 10 년의 징역, 최고 사형에 처하게 되여 있으며 《옥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령》에는 《중앙청》이나 《국회 의사당》 또는 《대통령 관저》, 《외국 대사관저》로부터 300 메터 이내 지역에서의 시위를 엄금한다는 것이 규정되여 있다.

그러나 금번 항쟁에서는 시위자들이 이러한 건물에 육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박 정희는 감히 가로막지 못하였다.

그는 금번 시위와 관련한 《담화》에서 《평화적인 시위》에 대하여는 《허락》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처지를 변호한 바 있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박 정희가 앞으로는 그 어떤 시위도 과거처럼 무력으로 탄압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스스로 취소해 버린 것으로 된다.

이것은 항쟁이 거둔 큰 승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항쟁은 지도적 력량의 결여, 조직성과 의식성의 미약으로 말미암아 일련의 약점과 제한성에서 완전히 벗어 나지 못 하였다.

항쟁은 주로 앉아 버티기, 가두 시위, 담판 등에 머물렀다.

문제는 오늘 남조선 인민의 모든 불행의 화근인 미제와 일제를 몰아 내고 매국 배족 행위를 일삼고 있는 박 정희 정권과 온갖 반동 세력을 분쇄하는 데 돌려졌어야 했다.

남조선 학생 청년들과 인민들의 투쟁에서의 이러한 약점과 제한성은 앞으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점차 극복될 것이다. 이것은 투쟁 발전의 합법칙성이다.

폭발의 원인

오늘 남조선 학생 청년들이 애국적인 투쟁에 궐기하게 된 것은 단순한 동기에서가 아니다.

그것은 미 일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과 박 정희의 매국 책동에 대한 쌓이고 쌓인 울분의 폭발이다.

미제는 오래 전부터 일본 군국주의자들과 남조선 괴뢰를 결탁시키기 위한 음모로 《한 일 회담》을 추진시켜 왔다.

다 아는 바와 같이 《한 일 회담》은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남조선에서 위기에 직면한 식민지 통치를 수습하며 나아가서는 극동에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고 《동북 아세아 군사 동맹》의 조작을 실현하려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의 산물이다.

미제는 조선 전쟁에서 패배를 거듭하던 1951년 10월부터 《한 일 회담》을 조작하고 그 후 직접 이것을 지휘하고 조종하여 왔다.

《아세아에서 일본이 지도적 역할을 놀아야 한다》느니, 《한국의 장기적 안정과 경제적 리익은 불가피하게 일본과 련결되여 있다》느니 하면서 일본 군국주의자들과 남조선 괴뢰들을 결탁시키려고 서둘렀다.

그러나 장 면 정권 시기까지 5 차에 걸쳐 조작된 《한 일 회담》은 조 일 량국 인민의 완강한 배격과 항의에 의하여 파탄되였고 좌절되여 왔다.

최근 미제는 남조선에서 저들의 식민지 통치가 전례 없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아세아에 대한 침략 정책이 전면적인 파탄에 직면하게 되자 종전의 배후 조종자의 가면마저 벗어 던지고 자기의 정체를 전면에 드러내 놓으면서 6 차 회담의 속결을 위하여 발광하게 되였다.

미제는 한편으로는 이께다를 비롯한 일본 당국자들과 박 정희를 워싱톤에 초청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 국무 장관 러스크, 법무 장관 로버트 케네디 등을 일본과 남조선에 파견하여 밀담을 거듭하면서 《한 일 회담》을 최종적인 결속에로 이끌기 위하여 로골적으로 책동하여 왔다.

이것을 기화로 교활한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들어 와 식민지 략탈자로서의 옛 지위를 회복해 보려고 망상하였다.

이미 남조선의 경제, 문화 등 각 방면에 손을 뻗친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최근 박 정희를 길잡이로 하여 급속히 남조선에 밀려 들어 왔다.

초보적인 자료에 의하더라도 최근 2 년 간 차관과 직접 투자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각종 계약 액수는 괴뢰 정부의 총 외화 보유고의 5 배인 5억 딸라에 달하고 있으며 이미 침투한 일본 독점체들은 무역, 《기술 협조》, 《보세 가공》 등의 형태를 통하여 남조선 무역의 주요 부문과 중 소 기업의 대부분을 손아귀에 넣었다.

경제적 침투와 병행하여 사상, 문화적 침투도 또한 로골화되였다.

지금 남조선에는 일본 상품과 함께 퇴페적인 일본의 노래, 영화, 소설들이 쓸어 들고 지어 종교의 탈을 쓴 《창가학회》까지 침투하여 남조선 인민들에게 악독한 독소를 퍼뜨리고 있다.

특히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한 일 회담》을 통로로 남조선에의 군사적 침투도 계획하여 왔다.

일제는 《한국과 분리된 일본 방위는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한 일 회담》을 속히 결속하려 할 뿐만 아니라 《공동 방위》라는 구실 하에 《한 일 국교 정상화》 전에 《한 일 군사 협력 계획》을 작성하여 놓고 대기 태세를 취하고 있으며 일본 군인들에게 조선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군대 파견 준비까지 서둘러 왔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박 정희는 남조선을 미제와 일본 군국주의자들에게 철저히 예속시켜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자기들의 처지를 구원하고 잔명을 부지하여 보려하고 있다.

박 정희는 《제 2의 리 완용이가 되더라도》, 《나라의 운명을 걸고서라도》 《한 일 회담》을 속히 성취시키겠다고 하면서 로골적으로 매국 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그들은 수천억 딸라로도 계산할 수 없는 대일 배상권 문제를 일본 군국주의자들에게 단 몇 억 딸라에 팔아 넘기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조선 어민들의 어업권, 재일 조선 공민들의 민주주의 민족 권리도 팔아 먹고 있으며 심지어 몇 푼의 어업 자금을 차관으로 받기 위하여 조국의 신성한 령토인 독도를 팔아 먹는 것까지도 꺼려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만일 《한 일 회담》이 타결된다면 남조선 인민들은 불피코 미 일 제국주의자들의 2중의 노예로 전락되고 말 것이다.

실로 남조선에는 《한 일 합병》의 전야를 방불케 하는 새로운 엄중한 위협이 닥쳐 왔다.

특히 《한 일 회담》의 일괄 타결을 목적으로 한 김 종필의 일본 행각은 정세의 추이를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던 남조선 학생 청년들의 신경을 극도로 자극하였다. 김 종필의 매국 행각을 계기로 《3.24 데모》는 폭발되였던 것이다.

《3.24 데모》를 폭발시킨 근저에는 《굴욕 외교》에 대한 반항과 함께 남조선 인민들의 참을 수 없는 민생고에 대한 불만이 놓여 있다.

박 정희 통치의 3 년 간은 남조선을 더욱더 헤여 날 수 없는 파국과 도탄 속에 몰아 넣었다. 박 정희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은 극도에 달하고 있다. 그들은 체험을 통하여 박 정희 통치가 계속되는

한 자기들의 처지 개선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였다. 그리하여 진리를 사랑하고 정의감이 강한 청년 학생들은 마침내 들고 일어 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방 통신까지도 《박 정희를 반대하는 학생 및 시민 시위들을 촉발시킨 것은 높은 생활비, 날로 낮아지고 있는 임금 및 광범한 실업이다》라고 정당하게 지적하였다. (1964. 3. 30 《에이피》)

투쟁을 멈춰 세울 힘은 없다

《3.24 데모》에 극도로 질겁한 박 정희는 자기의 여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학생 청년들에 대한 폭압을 강화하면서 다른편으로는 회유와 기만의 간교한 술책에 매여 달리였다.

그들은 학생 청년들의 애국적 투쟁을 탄압하기 위하여 괴뢰군 제 30 사단, 제 33 사단, 제 1 공수간(수도 경비 사단), 6 개의 헌병 중대, 수만 명의 지방 경찰까지 동원하였다.

원쑤들은 시위에 궐기한 학생 청년들을 마구 체포 구금하며 도처에서 적수공권의 군중들을 란타하고 지어 최루탄을 발사하며 위협 사격을 하는 등 만행을 감행하였다.

한편 박 정희는 학생 청년들의 투쟁을 회유 무마할 목적 밑에 3월 26일에는 라지오를 통하여 《특별 담화》를 발표하였다.

《특별 담화》에서 박 정희는 자신을 소위 《애국자》로, 《한 일 회담》을 《애국하는 길》로, 굴욕 외교를 《평등 외교》로 묘사하면서 자신의 매국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시도하였다.

특히 박 정희는 《특별 담화》에서 《승공 통일》을 이룩할 날이 수년 내에 박두했다》느니, 《한 일 회담》이 《승공 통일과 직결되여 있다》느니 하면서 《한 일 국교 정상화의 긴급성》을 력설하였다.

현실은 이러한 《론리》를 조소하고 있다.

《한 일 회담》이 범죄적이며 매국적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더우기 박 정희가 《승공 통일》이니, 뭐니 하는 것은 《한 일 회담》을 반대하는 남조선 학생 청년들의 투쟁을 무마하며 그들의 시선을 딴 데로 돌리려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승공 통일》이란 영원히 실현할 수 없는 망상에 불과하다. 이를 부르짖는 자는 《북진 통일》을 필생의 과업으로 내세웠다가 파멸한 리 승만의 운명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박 정희의 《특별 담화》는 남조선 전역을 휩쓸고 있는 학생 청년들의 투쟁을 회유와 기만의 방법으로 진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이 없다.

그러나 그들의 어떠한 탄압도, 회유도 남조선 학생 청년들의 투쟁을 멈춰 세울 수는 없다.

박 정희의 《특별 담화》가 발표되자 남조선 학생 청년들은 이구동성으로 《민의가 반영되여 있지 않다》고 반대 배격하면서 더욱더 대규모적으로 《한 일 회담》을 반대하는 시위에 나섰다.

결국 박 정희는 일본으로부터 김 종필을 소환하고 《한 일 회담》의 속결을 연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박 정희의 이런 조치는 결코 《한 일 회담》을 중지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는 《한 일 회담》을 끝까지 성사시켜 보려고 학생들과 직접 《회담》을 진행하며 자기의 졸개들을 강사로 대학에 파견하여 《한 일 회담》의 조기 타결의 필요성을 납득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회담》으로도, 《강연》으로도 각성된 학생 청년들을 기만할 수는 없다.

박 정희와 직접 《회담》한 학생 대표는 《회담이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자기들의 《요구 조건과 실행 목표의 관철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했다. (1964. 3. 30. 《동양 통신》)

지금 남조선 학생 청년들과 인민들은 정세 발전을 관망하면서 력량을 축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 남조선 학생은 일본 기자와의 담화에서 자기의 결의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정부도, 일본도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24일의 시위 이상으로 전체 학생들이 들고 일어 날 것이다.》(1964. 4.2 《아사히 신붕》)

남조선 학생 청년들의 투쟁은 남조선 인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고려 대학교 학생들의 《3.24 데모》 시에 서울 세종로에서는 5,000여 명의 군중들이 학생 대렬에 합류하여 시위에 참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들은 데모에 참가한 학생 대표를 체포하려는 경찰을 향하여 돌을 던졌으며 경찰에 추격 당하는 학생을 숨겨 주기도 하였고 시위자들에게 음식물도 공급하였다.

특히 《3. 24 데모》 직후에 단행된 남조선 1만 3,000여 명 운수 로동자들의 파업 결의, 경인 지구 미군 부대에 고용된 2,000 명의 로동자들의 해고 반대 투쟁 위원회 조직과 시위의 전개 등 이

모든 것은 학생 청년들의 투쟁에 대한 지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외롭지 않다.

오늘 북반부에는 나라의 부강 발전과 조국 통일을 담보하는 강력한 혁명 기지가 축성되였으며 북반부 전체 인민들이 싸우는 남조선 인민들과 함께 있다.

《한 일 회담》을 분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할 데 대한 금번 최고 인민 회의의 제안들은 항쟁에 궐기한 남조선 학생 청년들과 인민들을 무한히 고무하고 있다.

최고 인민 회의는 남조선에 조성된 현 난국을 타개하며 조국 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의 애국적 력량이 굳게 단합하며 반미, 반일 구국 대책을 토의하기 위한 남북 조선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의 련석 회의를 소집할 것을 남조선 인민들과 정계 및 사회계 인사들에게 제의하였다.

또한 경제적 난관을 겪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을 도와 주기 위하여 매년 200만 석(30만 톤)의 쌀, 10만 톤의 강재, 10억 키로 와트시의 전기, 1만 톤의 화학 섬유를 비롯하여 세멘트, 목재, 기계류 등을 남조선에 제공하겠다고 제의하였다.

그 밖에도 남조선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실업자들을 공화국 북반부에 받아 들여 그들에게 기능에 맞는 직업과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여 줄 것도 제의하였다.

최고 인민 회의의 이 제안들은 남조선 인민들 앞에 엄중한 재난이 닥쳐 오고 있는 현 정세 하에서 민족 자체의 힘에 의하여 조국의 장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로 된다.

오늘 국제 정세도 우리의 투쟁에 유리하게 발전하고 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혁명적 인민들과 진보적 인사들은 미제를 반대하여 싸우고 있는 우리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특히 일본 인민들 속에서는 범죄적인 《한 일 회담》을 분쇄하고 《동북 아세아 군사 동맹》 조작 음모를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이 더욱 치렬히 전개되고 있다.

지난 2월 16일 《한 일 회담》과 《동북 아세아 군사 동맹》 조작 음모를 반대하여 무려 100여 만의 인민들이 시위를 단행하였으며, 4월 5일에는 도쿄에서 《한 일 회담》의 즉시 중지를 요구하여 10만여 군중이 집회, 시위를 진행하였다.

일본 공산당은 《남조선 인민의 애국 투쟁을 지지한다. 정의는 일 조 량국 인민의 편에 있다》라는 제목의 성명까지 발표하였다.

성명은 일본의 애국적 력량이 단결을 강화하며 일 조 량국 인민이 단결을 강화하며 《일 한 회담》을 분쇄할 것을 호소하였다.

중국, 월남, 알바니야를 비롯한 형제 나라 인민들도 남조선 학생 청년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고 있다.

국제, 국내적으로 우리의 혁명 력량은 강대하며 우리 인민의 위업은 정당하다.

어떠한 원쑤도 외세를 배격하고 통일된 하나의 대가정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려는 인민들의 지향을 가로막을 수 없다.

지난 투쟁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남조선 인민들이 단결하여 거족적으로 투쟁한다면 원쑤들의 어떠한 아성도 능히 무너뜨릴 수 있다. 이것은 이미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경험이 실증하였다.

남조선의 모든 애국 력량은 반미, 반일 구국 투쟁의 기치 하에 단결하여야 한다. 단결은 힘을 십 배, 백 배로 강화한다. 단결하여 미 일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의 모든 책동을 분쇄하며 침략자들이 이 땅에서 배겨 나지 못 하도록 적극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투쟁만이 승리의 길이다.

범죄적인 《한 일 회담》을 분쇄하고 민족의 자유와 영예를 찾기 위한 남조선 학생 청년들과 인민들의 정의롭고 애국적인 투쟁은 반드시 승리하고야 말 것이다.

남부 월남에서 미제는 패배를 수습할 수 없다

고 현 일

미 제국주의자들이 발을 붙이고 있는 세계의 모든 곳에서 그들의 침략의 마수를 꺾어 버리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전례 없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아세아에서 미제는 인민들의 강력한 《집중 포화》에 걸려 들어 녹아 나고 있다. 아세아는 오늘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이 가장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침략과 도발을 감행하면 할수록 더욱더 만회할 수 없는 참패를 거듭하고 있으며 더욱더 헤여 날 수 없는 궁지에 빠져 들어 가고 있다.

바로 이러한 사태를 집중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오늘의 남부 월남의 정세 발전이다.

미국 잡지 《네이숀》은 《남부 월남에서의 우리(미국)의 형편은 우리가 지불한 대'가가 무엇인가를 보여 준다. 우리는 승리할 수 없으며 우리는 곤경에 빠지고 있다》고 쓰고 있다.

미국의 극우 분자인 골드워터까지도 미제가 남부 월남에서 《또 하나의 조선》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면서 저들의 《굴욕적인 패배》에 대하여 통탄하고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사실 오늘 남부 월남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서 당한 패배 이래 최대의 참패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 *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제는 1954년 인도지나 문제에 관한 제네바 협정이 성립되고 불란서 제국주의자들이 쫓겨나자 그들을 대신하여 이 지역에 침투하여 자기의 괴뢰 정권을 조작하기 시작하였다.

미제는 처음부터 제네바 협정에 조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파괴하면서 1955년 10월에는 제네바 협정에서 규정된 남북 월남 총선거를 거부하고 남부 월남에서의 《국민 투표》를 통하여 친미 괴뢰인 느고 딘 디엠 정권을 조작하였다.

미제는 남부 월남에 침투하면서 이 지역을 우선 중근동으로부터 극동 지역에 이르는, 사회주의 나라들을 반대하는 《포위선》의 중추를 이루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 지대로 전변시키며 남부 월남에서 급격히 장성하는 혁명 력량을 탄압 말살하며 나아가서 동남 아세아에서의 민족 해방 운동의 발전을 막아 보려 하였다.

이러한 기도 밑에 미제는 남부 월남 괴뢰들에게 막대한 딸라를 제공하고 군사 고문들과 전투 기재들을 투입하는 한편 괴뢰군을 동원하여 인민들을 반대하는 《소탕 작전》에 내몰았으며 직접적

인 무력 간섭을 감행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부 월남에서 《선전 포고 없는》 전쟁을 감행하여 나선 지난 기간에 남부 월남 괴뢰들에게 무려 30억 딸라의 군사 《원조》를 주었다.

1961년 5월 당시 미국 부대통령이였던 죤슨이 남부 월남에 기여 든 뒤를 이어 작성된 《스테일리—테일러 계획》은 남부 월남에서의 애국 력량과 인민 무장대를 소멸하기 위한 그들의 중요한 전략적 반공체를 의미하는 것이였다.

미제는 이 계획에 매달려 《속전 속결》의 방법으로 8개월 이내에 남부 월남에서 혁명적 애국 력량의 주력을 소멸하고 전쟁의 승리를 달성할 것을 꿈꾸었다.

인민 무장대와 애국 력량을 고립시키고 《소탕》할 것을 목적한 《전략촌》 계획과 《공수 (空輸) 작전》 전술은 그들이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군사 전략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미제의 주구 느고 딘 누가 《전략촌》 계획을 최후의 작전이라고 하면서 이 계획이 실시되고 있는 한 실패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까지 호언장담한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전략촌》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였는가를 말하여 준다.

미제는 저들의 《속전 속결》 전술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이공에 미 군사 원조 사령부를 설치하고 미군 전투 부대들과 막대한 군사 기재들을 《소탕 작전》에 투입하였다.

지난 2년 간에만 하여도 미제는 남부 월남에 2만 5,000명의 미군과 700대의 비행기, 수많은 전투 함선과 수천 대의 장갑차를 비롯하여 신형 살륙 무기와 수만 톤의 탄약을 끌어 들였다.

그들은 심지어 유독성 화학 무기까지 사용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 애국 력량에 대한 《소탕 작전》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미제가 하루에 150만~200만 딸라의 막대한 자금을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써도 그들의 무력 간섭의 규모와 침략적 발악 상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부 월남의 혁명 력량을 소멸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에 와서는 이미 부러진 다리를 끌면서 진퇴량난의 궁지에 빠져 허덕이고 있으며, 인민 무장대는 밀림 지대에서 벗어 나 활동 범위를 남부 월남의 전 지역에 확대하고 있다. 적들의 소굴인 사이공에서도 미제는 빈번히 폭탄 세례를 받고 있으며 시시로 위협하는 죽음 앞에서 공포에 떨고 있다.

미국의 한 기자는 남부 월남의 사태에 대하여 말하면서 《남부 월남 인민의 해방 투쟁은 밀림을 벗어 났다. 인민 무장대는 수용소와 〈전략촌〉의 철조망을 뚫고 사이공의 대문을 두드리고 있다…서부 고원의 무연한 밀림을 〈초토화〉하기 위한 미군 장군 하킨스의 계획은 실현되지 못한 채 오늘까지 종이'장으로 남아 있다…지금 그 누구도 미국의 괴뢰들이 남부 월남 전쟁에서 이기리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미국 신문들의 사설과 완고한 〈미국의 소리〉 방송 기자들의 보도들까지도 절망적인 비관에 완전히 빠지고 있다》(미국 기자 버체트 남부 월남 방문기)라고 썼다.

남부 월남 인민과 인민 무장대는 미제와 그 괴뢰들을 반대하는 전투에서 지난 3년 간에 1,500여 명의 미군을 포함한 25만 5,000여 명의 적들을 소멸하였으며, 900대의 비행기를 격추, 격상시켰

으며, 수많은 전투 기재들을 파괴 또는 로획하였다.

미제 침략자들이 애국 력량에 대한 《소탕 작전》의 기둥으로 삼았던 《전략촌》도 그의 80% 이상이 완전히 파괴되였고 《직승 비행기에 의한 수송 전술》도 마비되여 쓸모 없는 것으로 되였다.

남부 월남 인민 무장대는 메콩강 삼각주를 포함하여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전 령토의 3분의 2 이상 지역을 해방하였다.

남부 월남 해방 전선의 주위에는 일부 극반동들을 제외한 전체 인민이 집결되여 있으며 미제와 그 주구들은 인민들로부터 더욱더 고립되고 있다.

이 모든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남부 월남에서의 미제의 악명높은 《스테일리—테일러 계획》에 의한 공격 작전이 완전히 파괴되였으며 군사 전략적으로 그들이 위기에 빠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 도덕적으로도 파산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남부 월남에서의 혁명과 반혁명 간의 전쟁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우세한 무력에 의거하여 일시적으로 주도권을 장악하였던 미제와 그 괴뢰들은 완전히 수세에 빠졌고 초기에 적수공권으로 투쟁에 궐기한 유격대는 투쟁 행정에서 극복할 수 없는 힘으로 장성하였으며 지금에 와서는 완전히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이 외견 상 아무리 강하고 또 갖은 방법으로 발악한다해도 자기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의 력량은 소멸할 수 없으며 전체 인민들이 손에 무장을 들고 끝까지 투쟁에 궐기한다면 그 어떠한 적들도 격파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말하여 준다.

그것은 또한 인민들이 진정한 독립과 자유를 쟁취하는 길이 제국주의 앞잡이들이 운운하는 《계급 협조》나 원쑤들과의 《평화적 공존》이 아니라 그들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이라는 것을 실천적으로 확증하여 주고 있다.

남부 월남 인민과 무장대에 대한 미제의 침략 정책의 파산은 실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남부 월남에서의 미제의 군사 전략적, 정치 도덕적 패배는 동남 아세아에서 민족 해방 운동을 말살하고 사회주의 나라들을 《봉쇄》하며 침략하기 위한 미제의 전략 계획에 대한 심대한 타격으로 된다.

남부 월남 인민들은 손에 무장을 들고 미제의 침략 정책의 《척추》를 분질러 놓음으로써 동남 아세아 인민들 뿐만 아니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에 커다란 고무적 힘을 주고 있다.

남부 월남 인민과 그 무장대가 달성한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미제의 《전략촌》 계획과 《공수 작전》 전술을 마비시킴으로써 앞으로 그 어떠한 적들의 작전 계획도 능히 격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 *

남부 월남에서의 패배에 극도로 당황한 워싱톤의 지배층들은 곤경에서 벗어 날 그 어떤 《새 정책》 작성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다.

그들은 패배의 원인을 괴뢰 정권의 무능력과 병사들의 사기 저락에서 찾으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보다

《농툴적》인 괴뢰 정권과 미국의 《인내성》과 《최대한의 원조》가 요구된다고 말하고 있다.

미제 침략자들은 남부 월남에서의 저들의 군사적 패배를 만회하기 위하여 《특수 전쟁》의 확대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인민 무장대의 《공세의 근원》을 공격하며 민주 월남에 《제 2 전선》을 형성하려는 모험적인 책동까지 꾸미고 있다.

미제의 위기감을 반영하는 이러한 소동은 그들이 얼마나 당황망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 주며 더욱더 모험적인 전쟁 정책에 매여 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미제는 위기를 수습하기 위하여 불과 3 개월 동안에 두 번이나 괴뢰들을 교체하는 연극을 꾸미였다.

그러나 그들이 괴뢰들을 교체할 때마다 남부 월남 정세는 더욱더 미제에 불리하게 전변되였으며 인민 무장대는 그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가하였다.

미제는 또한 남부 월남 주재 미군 사령부 참모장을 파면시켰으며 월남 문제의 《권위자》의 하나인 극동 담당 미 국무 차관 힐즈맨을 국무성에서 내쫓고 새로운 호전 분자들로 교체하였다. 불과 두 달 전에 남부 월남 《시찰》 려행에서 돌아 갔던 미 국방 장관 맥나마라는 《베트콩을 반대하는 전쟁의 실태와 사태 발전을 평가》하며 《반베트콩 작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미국의 지원 수준 및 성격을 개선》할 방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지난 3월 8일에 또다시 남부 월남에 기여 들었다.

미제 호전 장군의 빈번한 남부 월남 방문이 《척추》가 꺾어진 저들의 침략 정책을 재검토하며 전쟁 확대 준비를 강화하려는 데 있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는 남부 월남에 기여 들기 바쁘게 괴뢰들을 고무할 목적 밑에 《최대한의 무제한한, 무조건적인 원조》를 약속하였으며 괴뢰들과 련일 《회담》을 벌려 놓고 그 무슨 《전략 행동 계획》을 검토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부 월남 괴뢰들에 대한 군사 장비 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깜빠니야를 벌려 놓고 있는데 서방 출판물들은 《제 2 차 대전과 조선 전쟁시를 상기시킨다》고 쓰고 있다.

승산 없는 《특수 전쟁》을 확대하려고 발악하면서 미제는 저들의 딸라의 힘과 무기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미제가 남부 월남의 《선전 포고 없는》 전쟁에 아무리 많은 딸라와 군사 장비를 투입한다 해도 곤경에서 벗어 날 《담보》란 없으며 그들이 발을 들이 밀면 밀수록 진흙탕 속에 더욱더 깊이 빠져 들어 가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미제와 그 괴뢰들이 남부 월남의 애국 력량을 반대하는 《선전 포고 없는》 전쟁에서 패배를 당하고 있는 것은 결코 그들의 군사적 장비나 《원조》의 부족 때문이 아니다.

군사 장비에 대해서 말한다면 우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미제는 남부 월남에 비행기, 함선 등 신형 무기들을 무제한 투입하였는바 이것은 인민 무장대의 장비에 비하여 우세한 것이였다.

《원조》에 있어서도 미제는 남부 월남에 실로 매년 5억 딸라 이상을 투입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가 련속 패배를 당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미제와 그 괴뢰들이 인민들로부터 철저히 고립되여 있으며 반인민적이며 반동적인 부정의의 전쟁을 감행하고 있다. 인민 무장대는 원시적 무기와 적은 력량으로써도 인민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고도 영웅주의와 애국주의를 발휘하고 능숙한 유격 전술을 적용함으로써 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으며 오늘은 강대한 력량으로 장성하였다.

인민 무장대의 영웅주의와 애국주의, 이것은 지난 년간 가렬한 전투에서 미제 침략자들의 간담을 서늘케 한 가장 세련된 《무기》였으며 승리의 담보였다. 적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도 유격대의 이 영웅주의와 애국주의이며 적들이 타산하지 못 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막대한 무기와 딸라를 투입하여 진행한 《특수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있는 지금에 와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담보》란 없다.

미제가 남부 월남에서 전쟁 확대에 광분하고 있는 조건에서 미제와 그 괴뢰들을 반대하는 남부 월남 인민의 투쟁은 보다 간고성을 띠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투쟁에서 영웅적인 남부 월남 인민은 반드시 종국적인 승리를 달성할 것이며 미제 침략자들이 마침내 전쟁에서 매장되고야 말 것이라는 것은 이미 명백한 사실로 되고 있다.

미제는 조선 전쟁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참패를 오늘 또 남부 월남에서 거듭하고 있다. 그들이 남부 월남에서 뿐만 아니라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 있는 모든 곳에서 《제 3의 조선》, 《제 4의 조선》…에 직면하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오늘 인민 무장대는 전체 남부 월남 인민을 승리에로 인도하고 있는 남부 월남 민족 해방 전선의 정확한 령도를 받고 있다. 남부 월남 민족 해방 전선은 남부 월남 혁명의 지주로 되고 있으며 민족적 해방과 자유와 독립을 위한 반침략 전쟁의 조직자이며 지도자이다. 뿐만 아니라 남부 월남 인민들은 민주 월남 인민들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무한한 고무적 힘을 얻고 있다.

또한 인민 무장대는 적들의 어떠한 공격도 격파할 수 있는 현대적 무기로 장비한 강력한 력량으로 장성되였으며 전국의 3 분의 2에 달하는 광활한 혁명의 근거지를 가지고 있으며 인민들의 물심 량면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들은 장기간의 투쟁에서 단련되고 세련되였으며 풍부한 경험을 소유하고 있다.

인민들 속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고도의 영웅주의와 애국주의를 소유하고 있는 인민 무장대는 미제와 괴뢰들의 어떠한 공격도 격파하고 승리할 것이며 이제 제 2, 3…의 《스테일리-테일러 계획》이 나온다 해도 그것이 맥을 쓰지 못 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미제와 결탁하고 있는 괴뢰 정권도 역시 더욱더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남부 월남 괴뢰 정권은 인민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되고 있으며 정치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하여 있다. 괴뢰 정권은 미제의 《원조》 없이는 단 하루도 지탱할 수 없는 문'자 그대로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남부 월남 문제를 둘러 싼 제국주의 진영 내부의 모순도 더욱더 증대되고

있다.

불란서 제국주의자들은 남부 월남의 《중립화》 안을 들고 나옴으로써 미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잃었던 남부 월남에서의 옛지위를 회복하려 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전쟁 확대 정책은 《나토》의 성원국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 하고 있다.

남부 월남에서의 미 제국주의자들의 전쟁 정책은 미국의 진보적 인민을 포함한 전 세계 인민들의 규탄을 받고 있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세계의 모든 곳에서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며 국제 헌병인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을 반대하고 있으며 남부 월남 인민들의 반미 민족 해방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고 있다.

지난 3월 아세아 및 태평양 지역 평화 련락 위원회 서기국은 성명을 발표하고 싸우는 남부 월남 인민을 지지할 것과 아세아 및 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에 더욱 큰 타격을 가할 것을 호소하였으며 인도네시아 로동조합 중앙 련맹은 300여만 명 맹원들의 이름으로 남부 월남에서의 미 제국주의자들의 야수적 만행을 규탄하고 남부 월남 인민들에 대한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이 모든 것은 미 제국주의자들로 하여금 참패의 운명을 면치 못 하리라는 것을 잘 말하여 준다.

현실은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침략 전쟁을 북부 월남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떠들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얼마나 승산 없는 일인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 준다.

❊ ❊

오늘 남부 월남 인민들의 투쟁은 더욱더 세차게 진행되고 있다.

정의의 투쟁에 궐기한 남부 월남 인민들의 전진을 막을 힘은 없다.

오직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부 월남에 대한 침략 및 간섭을 중지하고 모든 침략 군대와 무기를 철수하며 1954년 제네바 협정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만이 남부 월남에서의 저들의 위기를 면하는 길로 된다.

미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조국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으며 미제와 직접 대치하고 있는 조선 인민은 시종일관 싸우는 남부 월남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지할 것이다. 《우리 인민은 외래 침략 세력과 국내 반동 세력을 반대하며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월남 인민을 적극적으로 지지》(김 일성,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하고 있다.

남부 월남 인민들의 영웅적 투쟁은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 속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미 제국주의자들은 종국적인 패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근 로 자 제 8 호(루계 246 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 1964년 4월 17일 발 행 • 1964년 4월 20일

ㄱ—430243 값 40 전